

#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성은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노승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 <도와주신 분들>

정효정 (단국대학교 교수)  
강기수 (동아대학교 교수)  
김혜경 (경희대학교 교수)  
원효헌 (부경대학교 교수)  
임정훈 (인천대학교 교수)  
진성희 (인하대학교 교수)  
허 균 (부경대학교 교수)  
김주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연구원)  
최효선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송종숙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표혜영 (인천부평동중 교감)  
이승순 (인천부평동중 연구부장)  
이선희 (경기 부인중학교 교사)  
한영희 (서울 연희중학교 교사)  
박선숙 (서대문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팀장)  
김동엽 (교육자치시민회 대표)  
강준형 (KBSn 아나운서 팀장)  
신승준 (KBSn 사원)  
양봉호 (김영사 마케팅부 과장)  
정완교 (김영사 마케팅부 대리)



# 목 차

<b>제 1 장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범위 .....	6
3. 연구방법 .....	7
<b>제 2 장 자유학기제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탐색</b> .....	9
1. 자유학기제의 개념 및 특징 .....	11
2. 국내 자유학기제 관련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탐색 .....	18
1) 청소년 체험활동의 주요특성 .....	18
2) 동아리 활동의 주요특성 .....	26
3) 자율활동의 주요특성 .....	31
4)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의 주요특성 .....	33
5) 국내 청소년 체험활동 탐색에 따른 시사점 .....	39
3. 국외 자유학기제 관련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탐색 .....	44
1) 영국 쉼표학년제(Gap Year)의 주요특성 .....	44
2) 아일랜드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의 주요특성 .....	50
3) 덴마크 가교학년제(Bridging Year)의 주요특성 .....	56
4) 국외 청소년 체험활동 탐색에 따른 시사점 .....	62
<b>제 3 장 연구결과: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방안</b> .....	65
1. 자유학기제를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 모형 .....	67
1) 자유학기제를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의 기본 개념 .....	67
2) 자유학기제를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 별 각 조직의 기능과 역할 .....	71

2.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의 활성화 전략 .....	85
1) 체험활동의 가치 공유 및 확산 .....	85
2) 최적의 체험기관 발굴 및 효율적 매칭 .....	90
3) 체험활동의 질 관리 .....	97
4) 지속가능성 확보 .....	101
<b>제 4 장 요약 및 결론 .....</b>	<b>107</b>
<b>제 5 장 논의 및 제언 .....</b>	<b>113</b>
<b>참 고 문 헌 .....</b>	<b>117</b>

# 표 목 차

〈표 II-1〉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과 활동 .....	19
〈표 II-2〉 동아리의 유형 분류 .....	27
〈표 II-3〉 동아리활동의 영역 .....	27
〈표 II-4〉 청소년 동아리 운영 활동 .....	28
〈표 II-5〉 자율활동의 영역 .....	31
〈표 II-6〉 진로 및 직업체험 활동의 영역 .....	33
〈표 II-7〉 청소년활동시설의 유형 .....	34
〈표 II-8〉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 .....	35
〈표 II-9〉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을 통한 기대효과 .....	37
〈표 II-10〉 자유학기제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탐색활동’ 연계 .....	40
〈표 II-11〉 자유학기제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 연계 .....	41
〈표 II-12〉 자유학기제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 활동’ 연계 .....	43
〈표 II-13〉 영국 선포학년제 활동 기관의 유형 및 특징 (Jones의 2004년 보고 기준) .....	46
〈표 II-14〉 덴마크의 가교학년제의 유형 및 특징 .....	60
〈표 III-1〉 활성화 전략 1: 체험활동의 가치 공유 및 확산 .....	86
〈표 III-2〉 활성화 전략 2: 최적의 체험기관 발굴 및 효율적 매칭 .....	91
〈표 III-3〉 자유학기제 성공적 연계를 위한 제안 요소: 체험기관 발굴/섭외 .....	93
〈표 III-4〉 활성화 전략 3: 체험활동의 질 관리 .....	98
〈표 III-5〉 활성화 전략 4: 체험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 .....	101
〈표 IV-1〉 자유학기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 활성화 전략(종합) .....	111

# 그림 목 차

[그림 II-1] 박근혜 정부의 학교교육정상화 정책의 기본구상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2013.2.3.), 교육과학분과국정과제 토론회. p8. ··	11
[그림 II-2] OECD 회원국들의 PISA1) 점수와 삶의 만족도2) (이지연, 2013에서 재인용) .....	12
[그림 II-3]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유학기 운영 모형(교육부, 2013) .....	14
[그림 II-4]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유학기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모형(교육부, 2013) ··	16
[그림 II-5]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 모형 매트릭스 .....	21
[그림 II-6]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모형(이기봉 등, 2011) .....	22
[그림 II-7]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모형(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	23
[그림 II-8]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운영도 .....	24
[그림 II-9] TY 프로그램의 수준(양파모델) .....	53
[그림 II-10] 애프터스쿨 진학 동기(Katznelson 2013, p.104) .....	59
[그림 III-1] 자유학기제에 따른 지역단위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 구조도 .....	68
[그림 III-2] 자유학기제를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 모형의 틀 .....	69
[그림 III-3] 자유학기제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개념도 .....	76
[그림 III-4]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 사이트 .....	96
[그림 IV-1] 자유학기제를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 모형의 틀 .....	110

# 제 1 장

---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새 정부는 한국교육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21세기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의 필요성 제기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제도의 필요성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문제는 학교교육이 입시위주로 이루어지면서 교육의 본질을 소홀하게 만들었다는 데에 있다. 학교교육이 입시에 예속되어 학업성취도는 OECD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높지만,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발휘시키지 못하게 하는 학교생활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은 학교생활을 하고, 적은 수면 및 여가시간을 할애하여 가장 많은 시간을 학습에 소요하고 있으나 학습의 흥미와 관심은 낮고, 이로 인한 학업성적 스트레스는 낮은 행복감과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져 다양한 사회적 문제(학교폭력, 왕따, 자살 등)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정부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복지를 확충하고 능력중심사회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새정부 교육정책의 핵심비전 및 교육목표를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과 창의교육을 구현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방안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며, 청소년의 꿈과 끼를 끌어내어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기본방향임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정부는 공교육 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자유학기제’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교육부, 2013).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교육부, 2013). 또한 자유학기제의 본질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해 인생의 목표와 진로 비전을 수립하도록 격려하여 ‘내가 미래의 주인이며,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든다’ 라는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학생들이 자신이 학습동기를 점검함으로써 ‘왜,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지’ 에 대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곽병선, 2013). 즉, 자유학기제는 청소년의 ‘꿈과 끼’ 의 개발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자신의 미래 비전을 수립함으로써 삶의 행복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학기제의 도입에 따라 어떠한 교육적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이는 자유학기제의 개념에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교육활동 즉,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를 연구한 성은모 (2012)에 의하면,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많이 할수록 학교생활적응, 공동체의식과 타문화 수용도, 사회적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청소년들의 사고 깊이를 더해주고 개인의 소질 및 적성을 발견할 기회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히는데 도움주고 궁극적으로는 자아정체감, 도덕성, 사회성, 공동체의식 발달 등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김대일, 2006; 김미희, 2005; Blomfield & Barber, 2011; Fredricks & Eccles, 2008). 청소년 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하고 나아가 자아성찰의 기회, 삶의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라는 교육정책에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된 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인 자유학기제의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학기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된 청소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청소년 정책과 교육 정책의 연계와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 도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정책과 교육 정책은 학교 울타리를 중심으로 안과 밖의 논리로 전개되어 왔지만, 이젠 자유학기제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학교 안과 밖의 경계선을 허물고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꿈과 끼를 찾아 미래인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협력과 연계가 자유학기제의 성공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체험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이 학교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개념의 교육정책, 청소년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계 입장에서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 시킴으로써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학교 안과 밖의 경계선을 허물고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협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청소년 정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학기제를 위하여 청소년 체험활동이 연계하기 위해서는 조직 시스템간 구체적인 연계 모형과 이에 대한 조직간의 지원과 실천 전략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청소년 체험활동의 연계방안 연구결과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의 중요성을 환기 시킬 수 있으며,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된 조직운영 및 관리, 교육운영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청소년 체험활동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유학기제를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2.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3.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의 전략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4.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해 청소년 체험활동에서 향후 고려해야할 정책은 무엇인가?

## 2.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청소년 체험활동과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과의 연계 시스템 모형과 이에 따른 각 시스템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전략적 시스템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연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의 운영 목적, 기본방향, 그리고 추진전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자유학기제 도입의 기본적 취지와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 탐색하고, 이에 다른 자유학기제 정책의 운영 목적과 기본방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자유학기제를 위한 추진전략과 이에 따른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청소년 체험활동 정책에 대한 주요 운영 과정과 성과 그리고 이에 대한 제한점 분석이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정책의 운영과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아리 활동’ 영역과 ‘자율활동’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자유학기제의 기본취지와 유사한 진로탐색 영역에서는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 과 관련된 정책의 운영과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셋째, 자유학기제의 추진전략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대표적으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Y; Transition Year), 영국의 선포학년제(GY; Gap Year), 덴마크의 가교학년제 (BY; Bridge Year)의 주요정책에 대한 등장배경과 운영 현황의 특성, 그리고 이에 대한 주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 및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된 각계 각층의 전문가 혹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이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주요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관계자(학교운영자, 자유학기제 혹은 체험활동 담당 교사), 청소년 체험활동 관계자(청소년 수련시설 혹은 진로직업센터 운영자), 지역사회 관계자(교육자치시민회 대표, 기업체 운영자), 수혜자(학부모, 학생), 청소년 활동 전문가, 체험활동에 대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전문가 등의 인터뷰와 자문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요구와 필요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학교 안과 밖 즉,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지원 및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과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3. 연구방법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게 자유학기제 및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된 선행문헌분석과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방안을 구안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 영역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고, 인터뷰를 통하여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을 성공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1)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

우선 선행문헌분석은 자유학기제 및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효과와 제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철학과 기본 개념에 대한 선행문헌 분석, 자유학기제의 운영 목적 및 기본방향에 대한 선행문헌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자유학기제와 유사한 정책의 주요 효과 제한점을 분석하였는데, 우선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정책의 운영과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아리 활동’ 영역과 ‘자율활동’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자유학기제의 기본취지와 유사한 진로탐색 영역에서는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 과 관련된 정책의 운영과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국외에서는 자유학기제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Y; Transition Year), 영국의 쉼표학년제(GY; Gap Year), 덴마크의 가교학년제 (BY; Bridge Year)의 주요정책에 대한 등장배경과 운영 현황의 특성, 그리고 이에 대한 주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2) 자유학기제 및 청소년 체험활동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 및 협의회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학교조직, 청소년 체험활동조직, 지역사회조직, 그리고 청소년 정책 및 학교 정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회 및 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각계 각층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우선 학교조직은 실제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실행하여야 하는 학교장이나 교감, 그리고 자유학기제 담당교사를 만나 학교준비도와 준비에 따른 구체적인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체험활동조직은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와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학교 안과 밖의 조화를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전인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현재 수준에서 학교는 학교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에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소년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현장에서 실천하여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조직 또한 자유학기제나 청소년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사안에 대한 공감대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사회조직은 자유학기제의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이해와 향후 지원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사항 또는 지역사회나 학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지역사회의 기업체로서 일터를 개방하고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을 제공한 기업 운영자와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자유학기제의 수혜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자유학기제의 모습이 무엇이며,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청소년 체험활동의 운영방향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및 학교 정책 전문가들은 각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체험활동조직이 원활하게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을 수행한 전문가들과 학교정책으로써 체험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이나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온 전문가들로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연계방안과 정책적 시사점들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하였다.

## 제 2 장

---

# 자유학기제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1. 자유학기제의 개념 및 특징
2. 국내 자유학기제 관련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탐색
3. 국외 자유학기제 관련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탐색



# 제 2 장 자유학기제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1. 자유학기제의 개념 및 특징

### 1)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와 배경

교육부는 지난 3월 28일 국정과제 실천계획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정책의 비전을 ‘행복교육, 창의인재양성’ 이라고 제시하면서,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 를 2016년까지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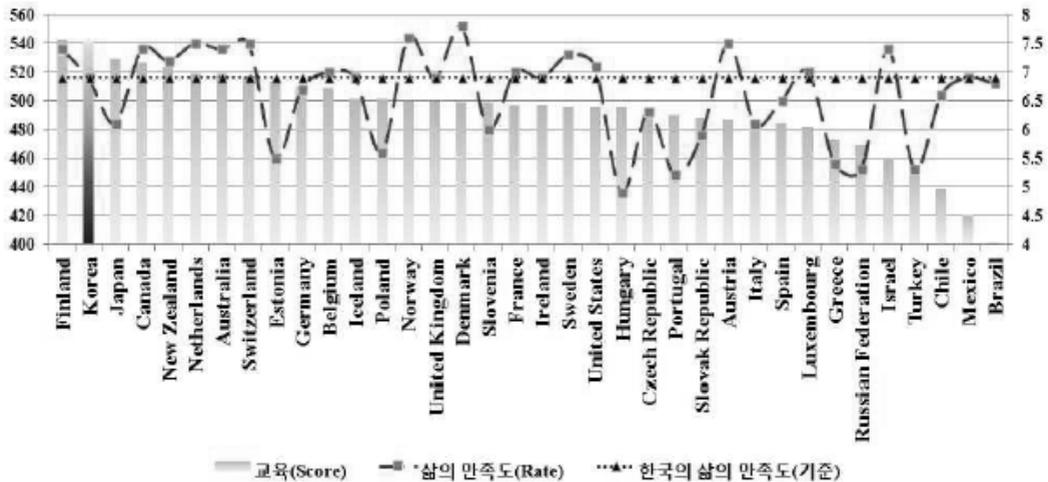


[그림 II-1] 박근혜 정부의 학교교육정상화 정책의 기본구상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2013.2.3.). 교육과학분과국정과제 토론회. p8.

‘중학교 자유학기제’ 는 한국교육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21세기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인식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21일 대선 공약으로 처음 제시되었다.

현재의 학교 교육제도는 입시에 예속되어 있어 학생의 인성과 창의성, 그리고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존중해 주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행복하지 않은 학교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점수는 평균 541점 2위, TIMSS 점수는 수학 597점 2위, 과학 553점 4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등 세계 상위권이지만 교육성과와 달리 청소년의 행복도 점수는 66점(100점 만점)으로 OECD 22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2011). 결국, 최고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을 지라도 정작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2012)

- 주: 1) PISA는 1997년에 OECD에 의해 시작된 국제 연구로서 문장이해력, 수학, 과학 평가를 통해 전 세계의 교육 시스템을 3년마다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해 측정되는 지표로 개별 주체들이 인식하는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냄. 평가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으로 측정됨.

[그림 II-2] OECD 회원국들의 PISA1) 점수와 삶의 만족도2)(이지연, 2013에서 재인용)

오히려, 입시위주와 경쟁위주의 학교교육은 획일적, 경쟁적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꿈과 미래를 위해 생각해 볼 수 없게 만듦으로써 청소년의 학업목적 상실과 학업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이것이 학교폭력, 왕따, 정신장애, 자살 등 청소년에게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으

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으로서의 학생들을 창의인재로 육성하는데 있어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교육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교육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을 도입하면서, 중학교 1학기 정도는 과도한 학업 및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의 개발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미래 비전을 수립함으로써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행복도를 증진시키자는 것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의 취지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구체적인 본질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해 인생의 목표와 진로 비전을 수립하도록 격려하여 ‘내가 미래의 주인이며,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든다’라는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 자신이 학습동기를 점검함으로써 ‘왜,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곽병선, 2013)

## 2) 자유학기제의 주요추진전략

그렇다면 자유학기제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현재까지 명확한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언급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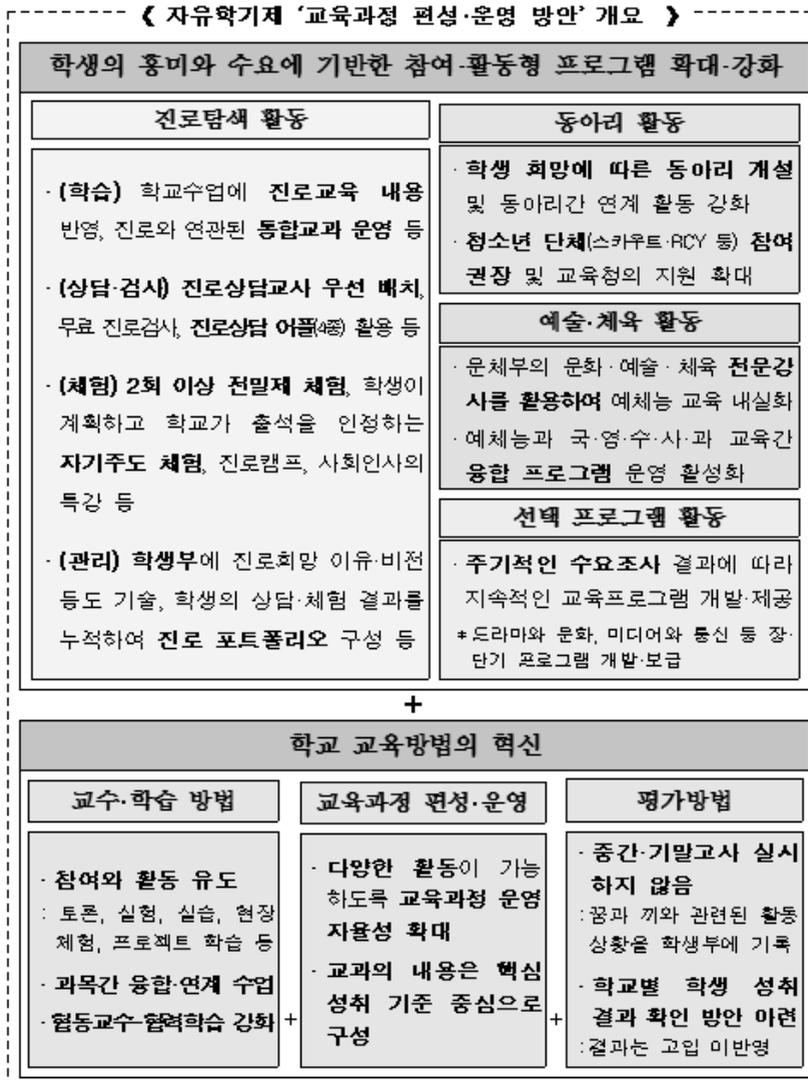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및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시험 없는 자유학기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운영은 현행 교육과정을 유지하되 한 학기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대신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의 꿈과 진로설계와 관련된 문화, 예술, 체육, 직업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그 학습의 과정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범연구학교 42개교를 선정해 오는 2학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시범연구학교의 자유학기제 시행결과를 반영해 제도 수정을 거쳐 2014~2015년에는 원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2016년에는 전국의 중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모든 중학교 1학년생이 2016년도에

일제히 자유학기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책 자문단과 자유학기제 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자유학기제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며, 지방에서의 원활한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해 권역별 주관 교육청 3곳과 연계해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 (2013)가 제시한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요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3]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유학기 운영 모형(교육부, 2013)

첫째, 학생의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확대이다. 이는 자유학기제 운영의 취지라고도 할 수 있으며,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에도 부합하는 특징이다. 학생이 자기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 진로교육 성취기준 및 성취지표’<sup>\*)</sup> 를 국·영·수·사·과 등 기본교과의 교육내용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진로학습이 실시된다.

둘째,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강화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 개설과 다양한 청소년단체의 참여 및 활동이 적극 권장되고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공공·민간기관에서 지원한 전문강사의 활용, 예술 과목과 국·영·수·사·과 과목의 융합수업, 스포츠 리그대회 활성화 등을 통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예체능 교육을 확대한다. 더불어, 이미 실시 중에 있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인성교육, 안전교육, 보건교육 등을 직업체험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학습효과를 높인다. 이를 위해 주로 예체능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발굴 및 관리가 요청되고 있다.

셋째, 학생의 참여와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이다. 자유학기 동안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에서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활동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국어, 영어, 수학은 암기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토론,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 학생 주도의 수업을 활성화하며, 사회, 과학 등의 경우 실험, 실습, 체험학습, 프로젝트 수행 등 탐구와 사고 중심의 수업이 강화된다. 또한, 다수의 교원이 한 수업에서 함께 가르치는 협동교수(Co-Teaching), 학생간 역할분담 및 협력 등을 통해 학습하는 협력학습(Co-Learning), 수업시간을 두 세 개씩 묶어서 운영하는 블록(BLOCK)타임제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융합·연계 교수·학습 모형(예시) 》

【교과간 융합학습 모형(안)】		【교과와 창·체 연계학습 모형(안)】	
교과	활동내용	구분	활동내용
국어	고운말·바른말 사용 의미·방법 토론	주제	이동성(mobility) : 나를 변화시키는 힘
↓		↓	
도덕 사회	바른 언어 사용 학급 규칙 정하기 자치법정에서 고운말·바른말 상 별 처리	교과 (2차 시)	이동과 관련한 직업세계 탐색, 조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직업군별 이동경 로 작성
↓		↓	
체육 미술	규칙준수 등 올바른 경기자세 학습 고운말·바른말 표어, 포스터 그 리기	창체 (2차 시)	조사자료 기초로 자신의 진로 상상· 설계, 이를 발표·공유하여 나와 타인 의 꿈 공유
↓		↓	
평가	교과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평가	과정 평가, 자기성찰 평가 등

[그림 II-4]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유학기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모형(교육부, 2013)

넷째,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이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20% 증감제도 및 시험기간의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유연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되, 교과 교육과정의 경우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마지막은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는 평가방법 마련이다.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게 기존에 실시하던 중간·기말고사는 실시하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신, 학교별로 수업진도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진전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형성평가, 자기 성찰 평가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지원센터(KEDI:한국교육개발원)를 통해 다양한 평가방안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3) 자유학기제의 주요 쟁점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학업 및 시험 부담을 줄이고 미래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자유학기제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 우려가 되는 주요 쟁점들이 있다. 왜냐하면, 이를 실제로 시행하는 방법이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이전 자유학기제와 유사하게 국가주도로 실시되었던 ‘열린교육’, ‘자유학습의 날’, ‘책가방 없는 날’,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육정책의 시행착오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수, 2013). 이러한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없애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성은모 (2013)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쟁점 1. 자유학기제의 목표와 방향이 과연 명확한가?
- 쟁점 2. 자유학기제 도입을 위한 학교내·외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 관련 지도교사 역량,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사회적 인프라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는가?
- 쟁점 3. 기존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하고 이와 연관된 교육제도를 손대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 쟁점 4.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데 평가를 한다는게 바람직한 취지인가?
- 쟁점 5.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 쟁점 6.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하지는 않을 것인가?
- 쟁점 7.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 쟁점 8. 자유학기제 종료 이후 학교행정 및 부모들의 교육방향의 혼란(cliff effect; 절벽효과)을 가중시키지는 않을 것인가?
- 쟁점 9. 기존 시행되었던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 2. 국내 자유학기제 관련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탐색

### 1) 청소년 체험활동의 주요특성

#### (1) 청소년 체험활동의 개념과 영역

청소년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경험,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기에 당면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역량들 즉, 사회적, 도덕적,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직업적 측면에서의 역량들을 발달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Pittman, 1999). 즉, 청소년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하여 깊은 지식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표현해 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체험활동은 체험과 표현 활동을 통한 자기 성장의 과정이므로,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풍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간 안에 있는 내면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여야 한다(정윤경, 2010). 이때, 체험활동은 체험 그 자체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표현을 통하여 교육적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호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김현철, 최창욱, 민경석, 2010). 이러한 청소년 체험활동은 단순한 경험의 연속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직된 교육적 경험이며, 학생의 필요와 흥미에 맞는 능동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때, 창의적 체험활동은 직접적인 직업교육이 아닌 진로체험활동의 효과를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체험활동은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나친 학습부담은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 지식 및 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고,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를 양성을 목적으로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따라 대두되었다. 특히, 제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교과 외 활동’, ‘자치활동·적응활동·계발활동·봉사활동·행사활동’, ‘재량활동’ 등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온 활동들의 연속선상으로 볼 수 있으며, 과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층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체험활동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재개념화하여,

기존의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영역과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표 II-1>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과 활동

영역	성격	활동	수업시수
자율활동	학교는 학생 중심의 자율적 활동 추진, 학생은 다양한 교육활동에 능동적 참여	적응 활동 자치 활동 행사 활동 창의적 특색 활동 등	□ 초 등 학 교 6 년간: 680시간 □ 중 학교 3년간: 306시간 □ 고등학교 3년 간: 24단위
동아리활동	학생은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협동하는 태도를 기르고 각자의 취미와 특기 신장	학술 활동 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실습 노작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등	
봉사활동	학생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 활동 실천 및 자연환경 보존	교내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연환경 보호활동 캠페인 활동 등	
진로활동	학생은 자신의 흥미, 특기, 적성에 적합한 자기 계발 활동을 통하여 진로 탐색·설계	자기 이해 활동 진로 정보 탐색활동 진로 계획 활동 진로 체험 활동 등	

(2) 청소년 체험활동의 운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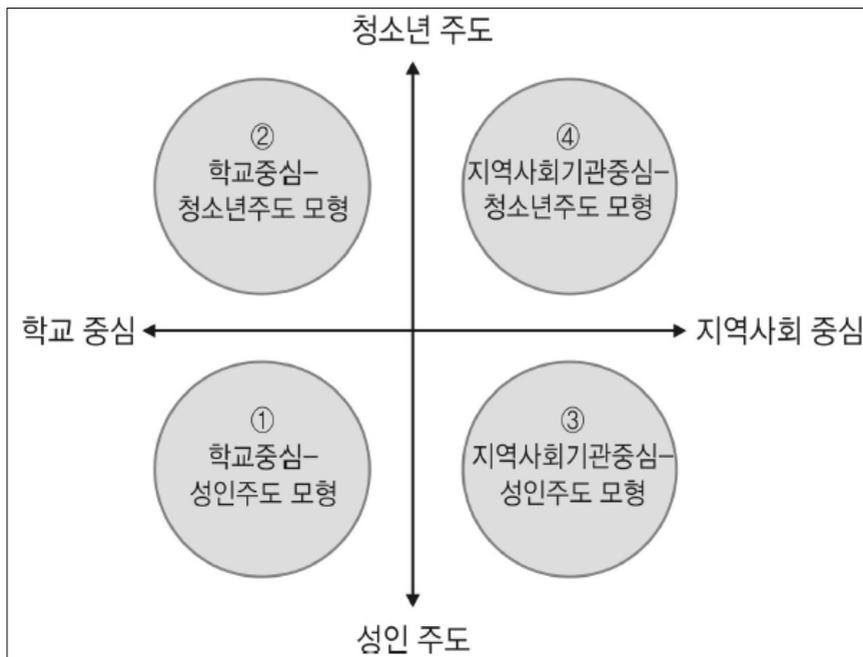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따라 교과군 학년군 도입을 통한 집중이수제로 학기당 이수과목을 10~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축소하고, 기존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모든 학생들은 기초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흥미와 적성에 따라 선택·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학교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재량 배정 가능,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학교급별, 학년별 활동영역 및 내용의 선택·집중 운영 가능
- ②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간 통합 편성 운영 가능
- ③ 학생들의 흥미·소질, 학교 및 지역의 실정 고려, 계획수립·운영에 학생의사 적극 반영

- ④ 학교의 필요에 따라 기준시간(단위) 이상 확보 운영 가능, 시간운영의 통합·집중 등 융통성 허용
- ⑤ 활동의 내용·조직단위·장소·시설 등 여건 고려 정일제·격주제·전일제·집중제 등 운영 가능
- ⑥ 자율활동의 국토순례·봉사·진로체험활동은 방학기간 운영 가능
- ⑦ 입학초기 적응활동, 특히 초등학교 1학년과 사춘기 학생의 경우, 자율활동 중 ‘적응활동’으로 편성 운영
- ⑧ 학교·교사·학생 요구에 따라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 연계 운영 가능
- ⑨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자원(인사·시설·기관·자료 등)의 자원파악 활용
- ⑩ 시도 및 지역 교육청의 인적자원과 제반시설·설비·자료·프로그램 지원
- ⑪ 시도 및 지역 교육청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연구과정 개설, 연구학교 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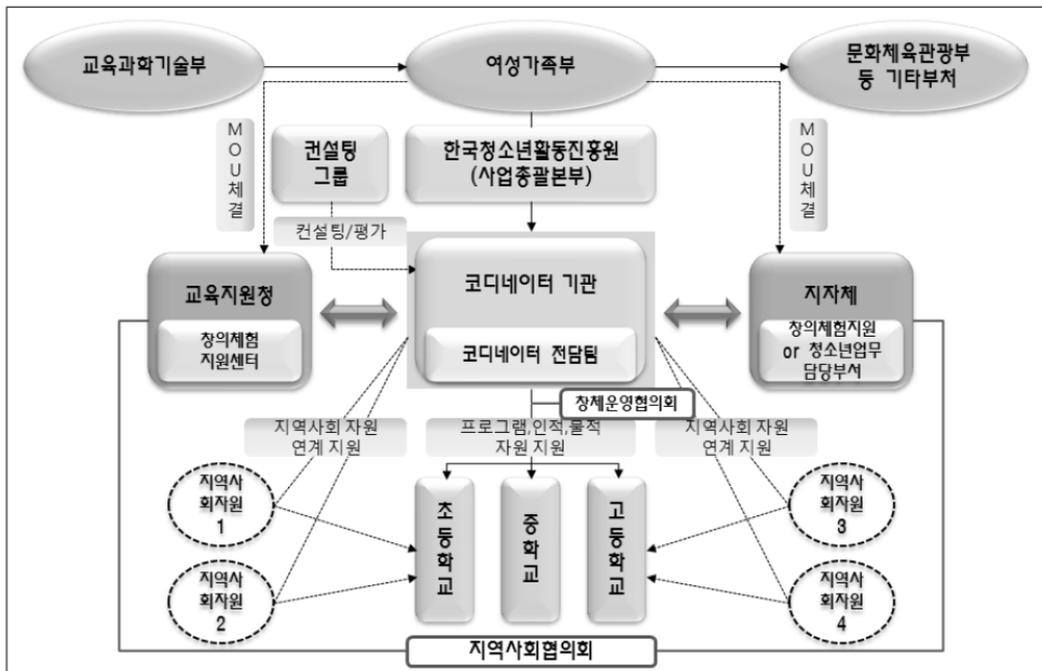
이처럼 각 기관에서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과, 비교과 활동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경험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교육과정의 제약으로부터 탈피하여 능동적이면서 주도적 학습능력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김종백, 2010). 둘째, 체험활동은 상황중심적이면서도 문제해결 중심적이어야 한다(김현철 외, 2010). 단순히 정보의 기억과 이해보다는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 경험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구성주의 교육패러다임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도 이러한 교육패러다임에 기반한 교육목표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체험활동은 협동성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김현철 외, 2010).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치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과 같은 학습자 공동체 활동에서 협력적 문제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기술 및 협력적 태도를 기를 수 있다(김종백, 2004; 김선희, 김언주, 박은희, 심재영, 2006). 즉,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습공동체나 협력학습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수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체험활동은 융합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김현철 외, 2010).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이 중요하다. 즉, 기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비교과를 통합하여 활동을 기획하고, 체험활동 자체는 상황중심문제해결중심으로 설계하되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철 등(2012)은 청소년 체험활동의 운영유형을 청소년 주도성과 지역사회연계정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4개의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중심-성인주도 모형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되, 학교가 중심이 되어 자원을 연계하고 운영하며 교사들이 주도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을 적용해서 지역사회자원을 활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둘째, 학교중심-청소년주도 모형은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및 활용을 학교가 주도하지만, 교사가 아닌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모형으로서,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지역사회기관중심-성인주도모형은 지역사회자원을 학교에 연계해 주는 역할을 지역사회기관이 맡는 모형으로, 성인주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주도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정교한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지역사회기관중심-청소년주도 모형은 청소년 체험활동에 전문성을 갖춘 지역사회기관이 지역사회연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청소년 주도로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체험활동의 효과도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모형은 청소년과 지역의 연계정도에 따라 각자의 참여역할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 기관의 상황적 특수성이나 청소년들의 참여준비 정도에 따라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여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5]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 모형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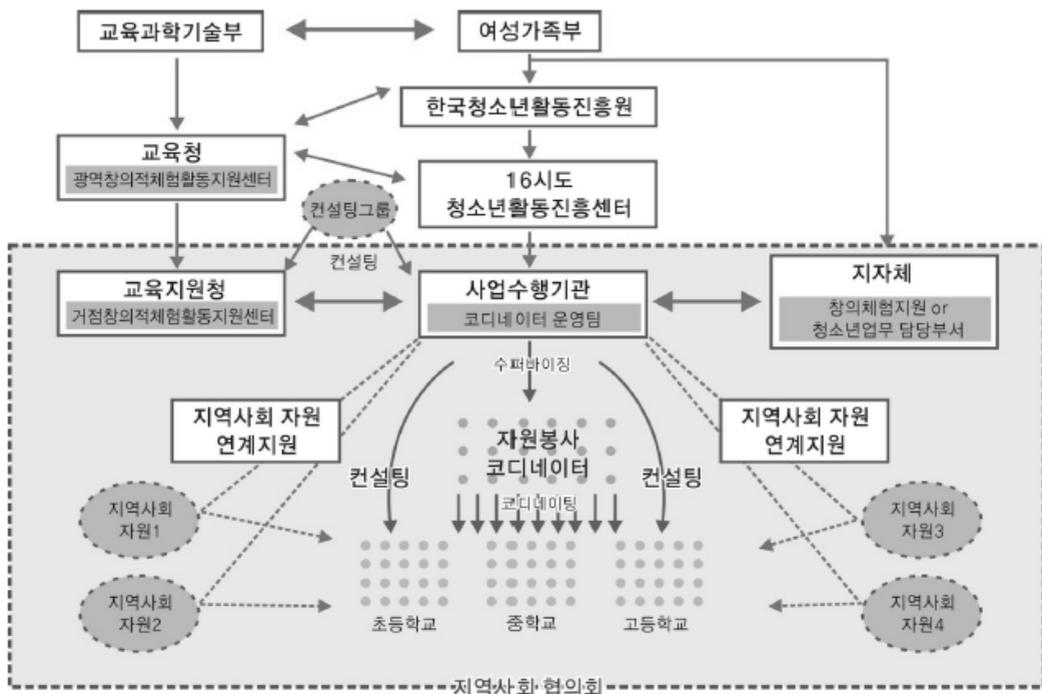
이처럼, 학교 밖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운영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기봉 등(2011)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체계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사업총괄본부를 맡아서 각 지역의 코디네이터 사업을 지원, 조정하고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때, 코디네이터 기관을 컨설팅하고 평가할 외부 전문가 그룹이 있어야 하며,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역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와 MOU 체결을 통한 행정적 지원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코디네이터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사회기관 협의회 등을 통하여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II-6]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모형(이기봉 등, 2011)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 체험활동은 학교중심이나 지역사회기관(청소년기관) 중심보다 성인주도인지 청소년주도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국가적인 교육체제의 일환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체제모형을 제시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운영모형이 제안되었다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더욱 긴밀한 협력

을 강화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와 코디네이터 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강조함으로써 학교와 코디네이터 기관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지역의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얻어 해당 지역 교사들에 대한 컨설팅과 연수에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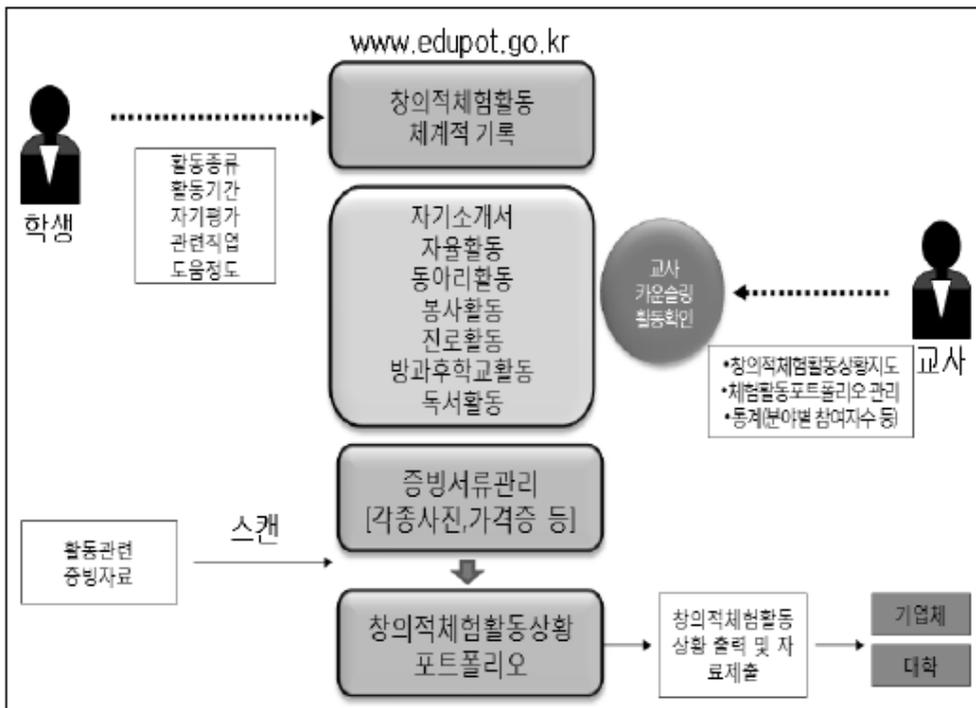


[그림 II-7]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모형(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 (3) 청소년 체험활동의 주요 효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창의인성교육기본방안’을 발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관리 시스템(에듀팟: EDUPOT)을 개발하여, 학생이 학교내외에서 수행한 교과외 활동을 스스로 기록 및 관리하는 온라인 기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에듀팟에 학생 스스로 작성한 내용은 교사의 승인·보완을 거쳐 교사가 작성하는

기존 학교생활기록부에 연동된다. 초등학교에서 고교까지의 자율, 진로, 동아리, 봉사활동 등의 실적을 포트폴리오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학사정관제 등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김현철 외, 2010).



[그림 II-8]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운영도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 설명자료 및 안내서를 개발하였다.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관련 국책 기관들(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등)에서 교육과정해설서 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개념과 세부영역에 대한 이해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셋째, 창의체험 자원제도(CRM)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창의체험자원지도(CRM: Creative-Activity Resource Map)는 교육청 단위로 지역사회내의 학교밖 교육자원(시설, 프로그램, 인적자원 등)을 소개하고, 교사와 학생이 창의체험활동을 설계·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목록을 의미한다. 넷째, 기업·출연(연)·대학 등이 보유한 첨단 장비 및 시설, 고급인력 등의 자원을 초·중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기부운동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부처간 교육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각 부처가 보유한 각종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의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의 MOU체결을 추진하였다. 여섯째,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 실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 사업(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는 크게 교육청별 CRM 개발 및 보급, 관내 담당교사 연수를 위한 시범지역교육청 지원사업, 선도학교 지정, 학교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창의·인성 수업모델 개발 및 교과별 연구회 지원사업을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성과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얻게 된 교육적 효과성도 드러나고 있다. 아직 프로그램 효과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운영기간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리더십 생활 기술의 향상을 나타내었고, 참여한 청소년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질적인 효과가 보고되었다(김현철 외, 2010).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동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직접 기술하는 등의 변화를 나타냈다. 또한, 체험활동의 심화과정으로서 동아리활동 조직에 대한 동기가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체험활동의 자기주도성 및 창의성이 계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초기에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초기 예상되었으나, 지금까지 실시해오던 창의적 재량활동 및 계발 활동 통합운영의 결과로 체험프로그램 호응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향후 보다 체계적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반의 지원체제가 뒷받침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청소년 체험활동의 제한점

청소년 체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나타났고(김현철 외, 2010), 이는 학교와 정부, 지역사회 기관들이 함께 풀어야 할 난제들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관리시스템(EDUPOT)의 불안정성으로 전국의 청소년들이 접속하여 운영하기에는 시스템 자체의 용량 등 체계가 불안정하고 소프트웨어의 질적 수준이 낮다. 또한, 다른 청소년활동 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동 부족으로 이중적인 작업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 및 준비 부족으로 바람직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사회 구심체가 미비하여 안정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코디네이터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다.

넷째, 지역 및 계층간 격차의 문제가 극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와 예산, 지역사회 자원이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역차 격차 및 계층간 격차는 교육기회의 격차로 재생산될 수 있다.

향후,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학교조직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지역 및 계층간 격차 문제 해결, 청소년 체험활동 인프라 확대 및 활동 프로그램을 개선, 청소년 지도자 양성과정의 체계화, 지역단위 청소년활동 거점센터 지정 및 코디네이터 배치, YRM제작과 창의체험자원지도(CRM)의 공동 개발, 청소년활동 기록관리시스템과 EDUPOT 연계, 체험활동의 계통성 확보를 통하여 점진적인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 2) 동아리 활동의 주요특성

### (1) 동아리 활동의 개념과 영역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 활동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학술활동,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등의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협동하는 태도를 기르고 각자의 취미와 특기 신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취미나 소질, 가치관이나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자생된 자치활동으로 자치적이며 지속적인 청소년활동을 의미한다(허성욱, 2001; 김정주, 김용대, 성기원, 2003).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의 청소년시설 또는 단체를 통해 조직되었거나, 청소년들 자생적으로 조직된 소규모 모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허철수, 강옥련, 2010).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흥미와 관심, 가치관 등을 공유한 청소년들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자생적 혹은 공식적으로 조직되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학교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자치활동이다. 따라서 청소년동아리활동은 활동 자체가 청소년들의 관심에서 출발하여 그 운영과 활동계획들이 청소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동아리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되어 제시되고 있는데, 모상현 등(2012)은 동아리의

유형을 활동내용, 활동장소, 공식성의 여부, 조직화의 방식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II-2> 동아리의 유형 분류**

구분	활동내용	활동장소	공식성	조직화방식
분류 기준	공유활동의 내용	동아리결성의 근거지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인정여부	동아리를 결성하는 주체
유형	-스포츠동아리 -학습동아리 -취미동아리 -과학동아리 -컴퓨터동아리 -봉사동아리	-학교동아리 -지역사회동아리 -사이버동아리 -자생동아리	-공식동아리 -비공식동아리 -인준동아리 -비인준동아리	-청소년주도동아리 -지도자주도동아리 -기관주도동아리

교육과학기술부(2009)에서 제시한 동아리 활동의 영역은 학술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이며, 다음과 같이 세부 활동으로 제시될 수 있다.

**<표 II-3> 동아리활동의 영역**

영역	활동 내용
학술활동	외국어 회화, 과학 탐구, 사회 조사, 탐사, 다문화 탐구 등 컴퓨터, 인터넷, 신문 활용, 발명 등
문화예술활동	문예, 창작, 회화, 조각, 서예, 전통예술, 현대예술 등 성악, 기악, 뮤지컬, 오페라 등 연극, 영화, 방송, 사진 등
스포츠활동	구기운동, 육상, 수영, 체조,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 하이킹, 야영 민속놀이, 씨름, 태권도, 택견, 무술 등
실습노작활동	요리, 수예, 재봉, 꽃꽂이 등 사육, 재배, 조경 등 설계, 목공, 로봇제작 등
청소년단체활동	스카우트연맹, 걸스카우트연맹, 청소년연맹, 청소년적십자,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등

허철수 등(2010)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첫째, 만화, 무용, 연극, 댄스, 힙합 등 청소년들의 감성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문화감성활동, 둘째, 과학실험, 인터넷정보, 영상매체 등을 이용한 과학정보활동, 셋째, 봉사활동이나 수화 등 공동체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봉사협력활동, 넷째, 탐사, 야영, 병영체험 등 극기와 모험심을 기르는 모험개척활동, 다섯째 생태활동, 숲 체험, 환경살리기 등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다양한 실천적 활동을 통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환경의식 활동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한상철 외, 2009). 첫째,

흥미, 취미, 소질, 적성, 특기가 비슷한 학생들로 구성된 활동 부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둘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 능력을 창의적으로 계발·신장하고, 자아실현의 기초를 닦는다. 셋째, 여가를 선용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한다. 넷째, 지역 내 학교간 각종 동아리 경연대회를 통해 우의를 다지는 협력과 공정한 경쟁을 익히도록 한다.

(2) 동아리 활동의 운영 특성

체계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 동아리 기획 과정’ 으로 운영목적 및 운영방향 설정, 운영 개요, 추진 일정, 기대효과 등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면접, 문헌조사, 선행 동아리 운영조사, 설문조사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청소년 동아리 준비과정’ 으로 홍보, 신청 및 접수, 동아리 분류, 심사를 실시한다. 셋째, ‘청소년 동아리 실행과정’ 으로 동아리 등록, 동아리연합회 운영 및 관리, 자원관리, 지역연계, 안전관리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넷째, ‘청소년 동아리 평가과정’ 으로 운영결과보고서 작성, 활동기록물 유지 및 관리, 제증명 발급, 평가 활동을 실시한다(모상현 외, 2012).

<표 II-4> 청소년 동아리 운영 활동

운영 단계	운영 활동
기획단계 (Desi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계획 수립: 운영목적 및 운영방향 설정, 운영 개요, 추진 일정, 기대효과 파악</li> <li>자료수집 및 분석: 전문가 면접, 문헌조사, 선행 동아리 운영조사, 설문조사</li> </ul>
준비과정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아리 운영 단계 중 홍보, 설명회, 신청 및 접수를 실시하는 준비</li> <li>육구파악 및 계획수립을 실시하는 준비</li> <li>홍보, 설명회, 면담, 신청 등을 실시하는 준비</li> <li>동아리 접수, 동아리 인증 확정 등을 실시하는 준비</li> </ul>
실행과정 (A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아리 운영 단계 중 발대식, 정기활동, 외부활동, 발표회 등을 실시</li> <li>오리엔테이션, 발대식 또는 인증식 등을 실시</li> <li>정기활동(회의, 연습, 친목활동, 교육), 외부활동(공연, 대회), 발표회 등을 실시</li> <li>중간점검을 위한 평가회의 등을 실시</li> </ul>
평가과정 (Refl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아리 운영 단계 중 평가계획 수립, 평가회의, 보고서 작성 등을 실시</li> <li>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계획서 작성 등을 실시</li> <li>평가회의 등을 실시하는 평가과정 중 실행</li> <li>동아리 활동 정산, 연간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실시</li> </ul>

동아리활동은 흥미, 취미, 소질, 적성 특기가 비슷한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신들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향상을 위한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동아리구성성을 하는데 있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고, 동아리구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동아리구성에 있어 불필요한 제약이 되고 있는 조건들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모상현 외, 2012). 첫째, 동아리 구성원들간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소년 중심의 운영을 통해 자율성이 최대한 신장되도록 한다. 둘째, 동아리운영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와 의사결정 및 재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구성원들의 진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동아리활동에 제약이 되는 조건들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시켜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가능하면 지역의 활용 가능한 자원들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활동보고회, 콘서트, 전시회, 발표회, 봉사활동과 연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동아리활동의 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시설과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동아리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토론의 장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일곱째, 동아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필요한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 (3) 동아리 활동의 교육적 효과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조직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단순히 취미를 즐기고 여가생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래들 간 혹은 연령간의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새롭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는데 의미가 있다(김예선, 2006). 동아리라는 집단활동을 통하여 집단구성원으로서 서로가 책임을 공유하고 협동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개인이 성장하고 책임있는 리더와 시민이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허성욱, 2001), 문제해결방법을 습득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소년동아리 활동경험은 청소년의 진로선택에도 큰 도움을 준다(김예선, 2006). 청소년 자신이 관심을

갖는 만화나 영상매체, 음악, 댄스, 봉사활동 등 특정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그 분야의 전문성과 직업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관련된 전문가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접하게 됨으로써 향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받기도 한다.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첫째, 자주적,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자발적, 능동적으로 실천하여 모든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둘째, 소질을 신장하고 창조력을 개발하여 개성있는 개인 인격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셋째, 사회 내의 자주적 성원임을 지각하고 책임감과 사회성을 배양할 수 있다. 넷째, 단체생활을 통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며 지도성, 협동성, 자치능력, 봉사정신 등의 자질을 기른다. 다섯째, 여가선용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흥미와 취미를 통하여 보다 폭넓은 생활태도를 함양한다. 여섯째, 건강한 정신과 몸으로 많은 직업적 경험의 기회를 가져 현명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김지연, 2000).

#### (4) 동아리 활동의 제한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입시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청소년 자신의 관심은 물론 부모나 학교 교사 등의 관심이 부족하고, 동아리 구성원간의 갈등이 높으며, 지나친 흥미나 오락성을 추구하고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첫째, 동아리 지원정책의 미비를 들 수 있다. 교육정책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체험학습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입시위주의 풍토인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동아리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자율적 활동이 아닌 학교의 규정, 정책에 맞게 운영되어지는 하나의 학습활동 도구로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청소년 동아리 지도자의 개인적인 관심과 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전문적인 동아리 활동 지도자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교사나 부모, 청소년들은 일탈행동 및 학습부진의 원인이 되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 왔다.

넷째, 청소년들의 단순한 놀이 활동이나 비공식적인 모임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오인되어, 사회적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위의 문제점들은 동아리 활동이 청소년들만의 소단위 비공식 활동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에 기초하여 발생된 공동체라는 점에서 그 교육적 가능성을 높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을 성장시키고,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3) 자율활동의 주요특성

#### (1) 자율활동의 개념과 영역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은 학교는 학생 중심의 자율적 활동 추진하고 학생은 다양한 교육활동에 능동적 참여하는 것으로, 적응 활동, 자치 활동, 행사 활동, 창의적 특색 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표 II-5> 자율활동의 영역

영역	내용
적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 진급, 전학 등에 따른 적응 활동 등</li> <li>• 예절, 질서 등의 기본생활습관형성 활동, 축하, 친목, 사제동행 등</li> <li>• 학습, 건강, 성격, 교우 등의 상담활동 등</li> </ul>
자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1역, 학급회 및 학급 부서 활동 등</li> <li>• 학생회 협의활동, 운영위원 활동, 모의 의회, 토론회 등</li> </ul>
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업식, 입학식, 졸업식, 종업식, 기념식, 경축일 등</li> <li>• 전시회, 발표회, 학예회, 경연대회, 실기대회 등</li> <li>• 학생건강 체력평가, 체격 및 체질 검사, 체육대회, 친선경기대회, 안전생활 훈련 등</li> <li>• 수련활동, 현장학습, 수학여행, 학술조사, 문화재 답사, 국토순례, 해외문화 체험 등</li> </ul>
창의적 특색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특색 활동, 학급 특색 활동, 학년 특색 활동, 학교 특색 활동, 지역 특색 활동 등</li> <li>• 학교 전통 수립 활동, 학교 전통 계승 활동 등</li> </ul>

자율활동은 학교 또는 학급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이 대부분이다. 먼저, 적응활동의 경우, 입학식, 졸업식 등의 행사와 기본예절교육, 상담 등 학급 내에서 담임선생님이 해야 할 역할로 편성되어 있다. 자치활동 역시 학급회의 등 학급 내에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이 대부분이다. 행사활동 역시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창의적 특색활동은 학교 또는

학급 단위로 학교의 방침이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질 영역으로 보인다(조남익, 2010).

자율활동은 청소년들이 전입학과 진급 등에 따른 생활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주도하는 능력을 길러 원만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고, 다양한 협의 및 실천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의사 결정의 기본 원리를 익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학급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의하고 실천함으로써 협동심과 유대감을 기르고, 교내외에서 실시되는 여러 행사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급, 학년, 학교의 특성 및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특색활동을 계획하고, 이에 참여함으로써 자신감과 창의성을 기르며, 학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소속감과 애교심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상철 외, 2009).

## (2) 자율활동의 운영 특성

자율활동을 운영하는 주요 지침은 다음과 같다(한상철 외, 2009). 첫째,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하며, 그 활동이 바람직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둘째, 모든 구성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여 참여 의식을 높이며 소속감을 가지게 한다. 셋째, 학생 전원이 학급 생활에 필요한 한 가지 이상의 일을 분담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하게 하되, 필요할 경우 역할을 교체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지도록 한다. 넷째, 행사 활동의 계획 수립, 준비, 시행, 반성 등에 있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자치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다섯째, 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사명, 목적, 시기, 장소, 대상, 행사 과정, 역할 분담, 유의점, 배치도, 상황 변동시의 대책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사전 답사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여섯째, 학교 행사의 실시에서 필요한 경우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되, 지역 사회의 요청에 의한 학교 행사는 그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곱째, 학생들이 교실과 교내를 벗어나 다양한 실생활과 자연을 접하여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한다.

#### 4)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의 주요특성

##### (1)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의 개념과 영역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은 청소년들이 개성을 발휘하고 사회적 역할 수행과 생계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적·형식적·비형식적 교육으로 어떤 직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또는 그 직업에서 경력을 계발하기 위해 준비하는 교육으로 정의된다(임지연 외, 2006). 이는 학교교육에서 진로지도는 상담자와 교사에 의해 개인의 자아, 직업, 훈련경로, 생활양식, 노동시장의 경향, 취업능력,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며, 기존의 학교 교실문화 중심의 직업교육을 보완하고 현실적으로 직업의 사회적 유용성을 각인시키고자 직업을 직접 보고, 듣고, 실제 체험하게 하는 활동이다. 청소년 진로체험의 궁극적 목표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직업의 사회적 유용성을 발견하게 하고 많은 수의 직업 중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찾아보게끔 하는 동기유발 및 진로설계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임지연 외, 2006). 이와 같은 진로 및 직업체험활동을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자기이해 활동, 진로정보 탐색활동, 진로계획 활동, 진로체험활동으로 구체화하면서 청소년들의 심도있는 진로체험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각 활동영역별 세부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 II-6> 진로 및 직업체험 활동의 영역**

영역	활동 내용
자기이해 활동	자기이해 및 심성 계발, 자기 정체성 탐구, 가치관 확립 활동, 각종 진로 검사 등
진로정보 탐색활동	학업 정보 탐색, 입시정보 탐색, 학교 정보 탐색, 학교 방문 등 직업 정보 탐색, 자격 및 면허제도 탐색, 직장 방문, 직업 훈련, 취업 등
진로계획 활동	학업 및 직업에 대한 진로 설계, 진로 지도 및 상담 활동 등
진로체험 활동	학업 및 직업 세계의 이해, 직업 체험 활동 등

이와 같은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은 자신의 특성, 소질과 적성, 능력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고, 각종 검사, 상담을 통해 진로 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진로와 직업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 및 설계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학업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직업체험활동 기회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한상철 외, 2009).

(2) 진로 및 직업체험 활동의 운영 특성

진로 체험활동은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활동 시설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 등으로 이루어지는 데, 세부적인 기관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II-7> 청소년활동시설의 유형

시설유형		내용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 설비와 부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으로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박물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 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이와 같은 청소년 활동 시설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데, 이들은 관계형성기술, 기획기술, 리더십, 연구기술, 요구분석, 상담, 코칭, 학습촉진기술, 협동학습지도 기술, 과제활동지도 기술 등을 훈련받게 된다. 각 기관마다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II-8>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

배치대상	내용
청소년수련관	○ 1급청소년지도사 1인, 2급청소년지도사 1인, 3급청소년지도사 2인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인을 초과하는 250인 마다 1급, 2급 또는 제3급 청소년지도사중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원	○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인 이상을 두되, 수용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과 500인을 초과하는 250인마다 1급, 2급 또는 제3급 청소년지도사 중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인 이상 둔다.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 시·도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때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의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유스호스텔	○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 단체	○ 청소년회원 수가 2,000인 이하인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0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000인마다 1급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수가 10,0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수의 5분의 1 이상은 1급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출처: 청소년지도법 시행령 별표 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일반 학생(초, 중, 고)부터 학업중단 청소년 혹은 취약위기 청소년까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각 기관마다 진로탐색, 진로교육, 진로상담, 리더십 캠프, 취업 면접훈련, 멘토링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로 및 직업체험 활동을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지도하여야 한다(한상철 외, 2009). 첫째, 학생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려는 태도를 갖게 한다. 둘째, 학생의 인성, 적성, 진로 성숙도 등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필요한 상담을 실시한다. 셋째, 진로 관련 상담 활동은 담임교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중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가장 밀접한 교과교사를 진로지도교사로 하여 학생 개인별 혹은 집단별 진로 상담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진로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상담 교사나 전문적 소양을 가진 학부모 또는 지역 사회 인사의 협조를 받는다. 넷째, 학생의 학업 진로, 직업 진로에 대한 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꾸준히 수정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다섯째, 진로 선택에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중등학생의 경우 ‘직업과 진로’ 과목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교 진학과 고교 1학년에서 진로에 따른 교과목 이수 및 고교 3학년에서 학업 혹은 직업 선택을 지도하는데 중점을 둔다. 여섯째, 학교 및 지역 사회 인사, 지역 사회 시설 등을 활용하여 장래에 학생들이 선택하게 될 학업과 직업에 대해 탐구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3)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

청소년의 진로체험에 참여하는 주체로는 크게 청소년, 학교 및 청소년시설 그리고 기업일 수 있는데, 이들은 진로체험을 위한 제각기 역할을 수행하여 교육적 성과를 얻게 된다. 첫째, 청소년은 진로체험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 직업에 대한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직업체험활동을 통하여 노동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책임에 대해 학습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진로설계를 구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둘째, 학교는 진로직업체험의 내용 및 성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체험결과를 진로지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은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학교, 지역사회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김기현, 맹영임, 2011). 아울러, 청소년들은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간관계형성능력, 정보활용능력, 미래설계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김기현 외, 2011).

<표 II-9>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을 통한 기대효과

영역	영역설명	능력 설명
인간관계 형성능력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며,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하여 공동으로 일을 추진	<b>【타인 이해능력】</b> 자기이해를 심화하며,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며, 상호 인정의 중요함을 알고 행동하는 능력
		<b>【의사소통능력】</b> 다양한 집단, 조직에서 의사소통, 인간관계를 구축하면서 자신의 성장을 추진해 나가는 능력
정보활용 능력	학습, 일의 의의, 역할 및 다양성의 이해, 폭넓은 정보를 자신의 진로와 인생을 선택하는 활용	<b>【정보수집 및 탐색능력】</b> 진로, 직업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탐색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 라이프스타일을 검토하는 능력
		<b>【직업이해능력】</b> 진로직업체험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사회, 기업과의 관련성과 사회 및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능력
미래설계 능력	꿈,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인생과 생활에 대해 생각하며,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진취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	<b>【역할파악 및 인식능력】</b> 생활, 일에서 다양한 역할, 의의 및 그 관련성을 이해하며,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나가는 능력
		<b>【계획실행능력】</b> 자신의 장래 목표로 하는 진로를 생각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진로계획을 세우며,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능력
의사결정 능력	자신의 의사와 책임에 기초하여 보다 나은 선택과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의 과제,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 극복	<b>【선택능력】</b> 다양한 진로선택지를 비교, 검토하거나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 결정하는 능력
		<b>【의사결정능력】</b>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을 이해하며, 선택결과를 수용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위해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나가는 능력

먼저, 인간관계형성능력은 평소 접하지 못하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존재 및 가치의 중요성을 자각할 수 있다. 그리고 협업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활용능력은 진로 및 직업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탐색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자신의 진로 및 직업선택을 구체화할 수 있다. 미래설계능력은 진로직업체험을 통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 진로를 선택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능력은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하여 체험 전 자신이 희망하던 진로 및 직업에 대해 재검토하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 및 직업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4)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의 제한점

우리나라 진로체험에 대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김기현 외, 2011). 첫째, 교과수업이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 학교교육에서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운영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50% 정도가 교과시간 외에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진로교육방법 중 상담 및 지도가 52.5%이며, 체험중심학습은 7.1%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진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실효성 등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현재 학교 현장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단순 활동일회성 행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직업세계의 역동성이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직업체험활동이 현장실습이나 직업현장 참여, 견학 등 직접 체험보다는 시청각 자료 활용이나 교내 특강 등 간접 체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반면, 학생들은 직접체험방식이 간접체험방식에 대한 호응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직업세계의 역동성이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직접 체험 기회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이나 직업체험에 있어서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하고 학교-지역사회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진로체험은 진로박람회(엑스포)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았고, 산업체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참여 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청소년들은 대학 학과 관련 견학, 지역사회 기관에서 주관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한 호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의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위의 문제점들은 진로체험과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하며 진로체험 정책추진이 미흡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학교 진로교육의 경우 진로담당교사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며 전문상담교사의 주 업무는 진로교육보다는 학교 폭력 대응 등 생활상담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 양성 과정에서 진로교육 관련 전문성 개발 기회가 부족하며 임용 이후는 교과 중심 교육에 치중하여 진로교육을 잡무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 5) 국내 청소년 체험활동 탐색에 따른 시사점

창의적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교과 이외의 활동을 통해 그들의 창의·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에서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2013년 9월부터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유학기제라는 획기적인 교육혁신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과 및 제한점을 토대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새로운 교육혁신시스템으로 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이 자기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 진로교육 성취기준 및 성취지표’를 국·영·수·사·과 등 기본교과의 교육내용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진로학습이 실시된다. 이때,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개발 연구는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진로역량 개발을 위해 81개 성취기준과 160개 성취지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연구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우선 배치, 진로심리검사 무료 제공, 진로상담 모바일 앱(App) 활용 등을 통해 학생별 특성에 맞는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자유학기 동안 2회 이상의 ‘전일제 진로체험’, 학생이 국내 기관에서의 진로체험 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은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자기주도 진로체험’, 진로캠프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학습하고 상담받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때, 자기주도 진로체험 기간은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희망사항’란 등을 학생이 원하는 직업뿐 아니라 희망 직업의 비전, 희망 이유 등도 기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자유학기를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에 걸친 학생의 진로탐색 활동이

체계적으로 기록·누적·관리되어 일련의 ‘진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자기를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계획하여 관련 기관을 체험하는 등 심도있는 진로탐색활동이 가능하게 되며, 자유학기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체제로서 기능하게 된다. 즉, 기존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주요 영역이었던 자기이해, 진로정보탐색, 진로계획, 진로체험 등의 활동은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심리검사 및 상담을 활용하며,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기관을 현장 견학하여 관련 전문가와 면담 등을 통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표 II-10> 자유학기제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탐색활동’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p>(자기이해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이해 및 심성 계발, 자기 정체성 탐구, 가치관 확립 활동, 각종 진로 검사 등</li> </ul> <p>(진로정보 탐색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 정보 탐색, 입시정보 탐색, 학교 정보 탐색, 학교 방문 등</li> <li>• 직업 정보 탐색, 자격 및 면허제도 탐색, 직장 방문, 직업 훈련, 취업 등</li> </ul> <p>(진로계획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 및 직업에 대한 진로 설계, 진로 지도 및 상담 활동 등</li> </ul> <p>(진로체험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 및 직업 세계의 이해, 직업 체험 활동 등</li> </ul>	<p>(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수업에 진로교육 내용 반영, 진로와 연관된 통합교과 운영 등</li> </ul> <p>(상담·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상담교사 우선 배치, 무료 진로검사, 진로상담 어플(4종) 활용 등</li> </ul> <p>(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전일제 체험, 학생이 계획하고 학교가 출석을 인정하는 자기주도 체험, 진로캠프, 사회인사의 특강 등</li> </ul> <p>(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부에 진로희망 이유·비전 등도 기술, 학생의 상담·체험 결과를 누적하여 진로 포트폴리오 구성 등</li> </ul>

물론, 청소년 진로직업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청소년관련 시설 모두 진로체험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시설이 중심이 되는 진로직업체험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

여야 하며, 이때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체험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이 진로탐색 활동을 통하여 인간관계형성능력, 정보활용능력, 미래설계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의 핵심 역량을 획득하도록 할 수 있는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학교-지역사회 등과 어떻게 연계하여 운영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동아리 활동을 위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 개설과 다양한 청소년단체의 참여 및 활동이 적극 권장되고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표 II-11> 자유학기제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p>(학술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 회화, 과학 탐구, 사회 조사, 탐사, 다문화 탐구 등</li> <li>• 컴퓨터, 인터넷, 신문 활용, 발명 등</li> </ul> <p>(문화예술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예, 창작, 회화, 조각, 서예, 전통예술, 현대 예술 등</li> <li>• 성악, 기악, 뮤지컬, 오페라 등</li> <li>• 연극, 영화, 방송, 사진 등</li> </ul> <p>(스포츠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기운동, 육상, 수영, 체조,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 하이킹, 야영</li> <li>• 민속놀이, 씨름, 태권도, 택견, 무술 등</li> </ul> <p>(실습노작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리, 수예, 재봉, 꽃꽂이 등</li> <li>• 사육, 재배, 조경 등</li> <li>• 설계, 목공, 로봇제작 등</li> </ul> <p>(청소년단체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카우트연맹, 걸스카우트연맹, 청소년연맹, 청소년적십자,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희망에 따른 동아리 개설 및 동아리간 연계 활동 강화</li> <li>• 청소년 단체(스카우트·RCY 등) 참여 권장 및 교육청의 지원 확대</li> </ul>

기존의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실습노작, 청소년단체활동 중심의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었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동아리 활동을 학생참여와 학교 및 지역사회기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은 개선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첫째, 동아리활동을 청소년활동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이나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진흥하는 중요한 청소년활동의 하나로 부각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동아리활동을 청소년사업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등의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리활동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해주는 인증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동아리활동은 조직구조나 운영방식 등에서 청소년의 자율성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형태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개인의 진학이나 진로에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인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행과 더불어 활동영역의 하나인 동아리 활동영역을 통하여 청소년기의 동아리활동이 진학이나 취업 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진로 및 봉사 등 타 영역과 비교하여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동아리활동이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사회성을 기르는데 중요한 활동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증을 통하여 청소년기의 활동이 사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어야 한다. 넷째, 동아리활동의 인증체계에서는 단순한 활동 기록이 아니라 동아리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을 의미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아리활동 내용에 대한 청소년 자신의 자기평가, 소감문, 에세이 등으로 활동내용을 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동아리 활동을 위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관심 분야, 선호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학생이 원하는 선택형 교육프로그램을 발굴·개발·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표 II-12> 자유학기제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 활동’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p>(적응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 진급, 전학 등에 따른 적응 활동 등</li> <li>• 예절, 질서 등의 기본생활습관형성 활동, 축하, 친목, 사제동행 등</li> <li>• 학습, 건강, 성격, 교우 등의 상담활동 등</li> </ul> <p>(자치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1역, 학급회 및 학급 부서 활동 등</li> <li>• 학생회 협의활동, 운영위원 활동, 모의 의회, 토론회 등</li> </ul> <p>(행사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업식, 입학식, 졸업식, 종업식, 기념식, 경축일 등</li> <li>• 전시회, 발표회, 학예회, 경연대회, 실기대회 등</li> <li>• 학생건강 체력평가, 체격 및 체질 검사, 체육대회, 친선경기대회, 안전생활 훈련 등</li> <li>• 수련활동, 현장학습, 수학여행, 학술조사, 문화재 답사, 국토순례, 해외문화체험 등</li> </ul> <p>(창의적 특색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특색 활동, 학급 특색 활동, 학년 특색 활동, 학교 특색 활동, 지역 특색 활동 등</li> <li>• 학교 전통 수립 활동, 학교 전통 계승 활동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기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제공</li> <li>• 드라마와 문화, 미디어와 통신 등 장·단기 프로그램 개발·보급</li> </ul>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고시된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존의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더욱 체계적인 체험활동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2013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는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층 도약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교육혁신체제로서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활동,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체제로서 기능하게 될 때,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21세기에 요구되는 창의성, 협업능력, 공감능력 등을 키우는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하는 자유학기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내용(what)’을, 자유학기제는 ‘운영체제(how)’로서 교육혁신을 위한 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 3. 국외 자유학기제 관련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탐색

본 장에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국외의 청소년 체험활동 정책 및 사례(영국의 쉼표학년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덴마크의 가교학년제)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국내 자유학기제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도록 한다.

#### 1) 영국 쉼표학년제(Gap Year)의 주요특성

##### (1) 쉼표학년제의 등장 배경 및 목적

영국에서는 19세기부터 학생의 정규적인 학교 교과 이외의 경험이나 활동에 주목하고, 이를 교육 과정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Simpson, 2005; McGhee & Santos, 2005; Jones, 2013 재인용). 이러한 교육적 전통 아래 쉼표학년제(Gap Year, 이하 GY)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기관 갭이어닷컴([www.gapyear.com](http://www.gapyear.com))의 여행관련 편집장인 Sherifi에 의하면, GY는 196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추가적인 전쟁에 대한 예방과 국가 간 인식 증진 및 문화교류 차원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Tomazos와 Butler(2008)는 20세기 초 유럽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다양한 국외 자원봉사 활동들을 GY 개념과 관련시키고 있는데(Brown and Morrison, 2003; Daldeniz & Hampton, 2010 재인용), 실제 GY의 최초 사례들과 현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해외 봉사활동 유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1967년 니콜라스 브리스톨(Nicholas Maclean-Bristol)이 설립한 프로젝트 트러스트(Project Trust)에서 에디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로 세 명의 봉사자를 파견한 일은 GY의 최초의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더불어 1970년대 성장한 오퍼레이션 롤리(Operation Raleigh)는 “자아 계발 및 전 세계의 웰빙”(Jones, 2013 p.55)을 위하여 저소득국가로 봉사자들의 파견을 지원하였다.

초기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운동이 자만적인 영국의 문화와 태도, 세계 개발에 대한 전근대적 시각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으나(Simpson, 2005; Jones, 2013 재인용), 오늘날 GY는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미와 형태로 진화해왔다.

## (2) 심포학년제의 운영현황 및 특성

GY는 기존의 해외 봉사활동 차원을 넘어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현재는 과도한 경쟁으로 치닫는 현대 사회에서 교과 이외의 활동을 통하여 자아계발을 이루고 현대의 직장생활에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되었다(Jones, 2004). 또한 정부와 교육 관련 정책입안자들은 전통적인 교육에서 다소 부족했던 리더십이나 대인관계 기술과 같은 소프트 기술의 계발에 무게를 두고 있다(Jones 2005; Health 2006; Jones, 2013 재인용).

기존 GY는 고등학교 졸업 후의 대학진학 이전의 학생들이 주된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중등과정의 학생들 뿐 아니라 학위 과정, 또는 대학생활 전후를 대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또한 기간에 있어서도 최소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더욱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Jones, 2004).

Jones(2004)는 16세에서 25세 가운데 약 25만에서 35만 명이 GY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예상하였다(2004년 기준). UCAS(영국의 대학입학시스템)을 통하여 대학입학을 연기한 학생 수를 산출할 수는 있으나, 앞서 밝힌바 오늘날의 GY는 참여 연령이나 대상이 확대되어 실제 GY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GY는 오늘날 확고히 자리 잡은(well-established) 개념이자 프로그램이며, 다양한 관련 산업들이 등장 및 성장하는 과정 속에 더욱 많은 학생 또는 사람들이 GY에 참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Jones, 2013).

Jones(2004)는 2004년 GY 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을 구분하고 특징을 설명하였다. GY는 크게 전문기관과 자원봉사 관련 기관(무급과 유급), 여행이나 여가와 관련한 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나뉜다.

<표 II-13> 영국 선포학년제 활동 기관의 유형 및 특징(Jones의 2004년 보고 기준)

		규모(기관수/ 수용가능인원)	프로그램 구성	비용	기타
전문기관		80-100/50,000	장기 해외 프로그램	일반 기관에 비해 고비용 부담	대입 전후 학생 대상
무급	국내자원 봉사기관	정확한 집계 불가/50,000이상	장기 프로그램 (사회봉사, 보육, 환경 관련 사업)	최대 주당 100 파운드	소규모 기관
	국외자원 봉사기관	800/350,000	해외자원봉사 (국내와 유사)	500-2,000 파운드	약 200개 국가에서 활동
유급	국내활동 지원기관	정확한 집계 불가	활동 지원 기관에 따라 다양		
	국외활동 지원기관	30(기관수)	보육, 인턴십, 스포츠 및 영어 관련 활동 등		
여행 및 여가 관련 기관		여행 산업 관련 기관 다수			

GY가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GY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다소 최근에 이루어졌다. 2005년 Ian Russell을 첫 의장으로 출범한 러셀위원회(Russell Commission)는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시발점이었다. 러셀위원회의 목적은 단순히 개인의 단편적 경험이나 성숙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 또는 청년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나아가 자발적 참여의 기회를 통하여 변화를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Russell, 2005). Russell(2005)은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다양한 조직에서 실제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영국 정부는 러셀 위원회를 시작으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후 해당 정책의 확대로 2010년에는 청년층 대상의 국가차원의 ‘국가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하였다(Jones, 2013).

영국 정부는 2011년 16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GY 관련 사업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스포츠 활동 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형태로 약 3주간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왕세자재단, 영국자원봉사센터(Volunteer UK)등과 같은 자원봉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GY는 활동이 다양한 만큼 일관된 기준을 토대로 인증 및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공식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하기란 어렵다. 그리하여 현재 영국에서는 의사소통 및 협상 등 다양한 대인기술 계발에 초점을 둔 체계적인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동시에 이수 인증제, 능력 검정, (공식적) 학업 외 능력 검정 등을 주요한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Jones, 2013).

### (3) 심표학년제의 주요효과

Jones는 2004년 보고를 통하여 GY를 통한 사회적 이점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자료들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일부 연구의 사례들을 통하여 GY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 측면에서 Roker 외(1999) 다수의 연구에서는 젊은 층의 자원봉사활동과 다양한 시민활동들이 사회에 이롭다는 공통적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물론, Jones는 GY를 구성하는 다수의 해외여행 및 봉사 참여가 영국 내에서 과연 어떠한 사회적 이득 또는 혜택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찬반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국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구조적·체계적 완성도와 참여 이후 얻은 경험 및 결과의 국내에서의 사후관리 및 적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영국 사회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활동의 유형에 따라 유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회에 대한 기여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와 달리 무급 또는 개인적 여가의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inactive) 사회적 비용(societal cost) 측면에서 GY는 오히려 사회에 해롭다-에도 불구하고, 타 문화 간 이해와 지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후자의 유형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국 사회에 대한 이득이 될 수 있다(Brockehof & Wadham-Smith, 2008).

동일한 보고서(Jones, 2004)에 따르면, GY 참가자들의 개인적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점들이 있다: ① 학업 성취 향상; ② 진로 및 적성 계발; ③ 교육, 훈련 또는 직무로부터의 탈락 예방 ④ 취업 가능성 또는 기회 상승; ⑤ 전문성 계발; ⑥ 사회적 자본 획득; ⑦ 생활 관련 기술 습득 ; ⑧ 사회적 가치 개발; ⑨ 자기 주도적 학습; ⑩ 실전 경험으로부터의 감각과 지식; ⑪ 학습 목표에 대한 동기 부여.

구체적으로 첫째, 참가자들은 진로 및 적성을 개발하고, 실무 기술이나 자격을 얻게 된다. 이 외에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life skills)를 습득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자립심, 의사결정력, 대인기술, 문제해결력, 리더십, 자기관리, 의사소통기술, 재정관리 등이 있다. 이는 지역사회 기반의 봉사활동 참여가 참가자의 자신감과 성숙도를 향상시킨다는 Jones(2008)와 Sherraden 등(2009)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Jones, 2013). 둘째, GY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Jones(2004)는 학생들의 과외활동에 대한 우려 중 한 가지인 학업 성취 저하에 대하여 실제 대학에서의 GY 참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일정 수준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단, 이러한 긍정적 결과가 GY의 단일 효과라고 단정을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GY를 통해 장기적인 시민봉사활동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비록 이는 장기적인 차원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겠으나, Sherraden 등(2005)과 Rockcliffe(2005)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GY 활동의 경험이 있는 노년층이 유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을 것이다.

Jones(2004)는 체험 일터나 기관 측면의 일터 측면에서 실제 많은 기업에서 GY 경험으로 얻게 되는 소프트 스킬이나 생활 기술(life skills)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재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전히 다수의 기업에서 그와 같은 역량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실제 GY로 해당 역량들을 얻은 사례, 나아가 그러한 사례의 인물이 기관 내에서 어떻게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지에 관한 관련 다양한 사례나 연구가 미흡한 것이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GY는 학생 또는 성인 주도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활동인 만큼 참가자 스스로가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Jones(2004)는 GY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국의 경우는 수년간 GY만을 다룬 전문 안내 서적들이 많이 등장했다(Flynn, 2002; Griffith, T., 2003; Hecht, 2003; Vandome, 2003, etc.; Jones, 2004 재인용). 또한 근래에는 인터넷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GY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사이트들이 등장하여 GY 참가를 수월하게 하고 있다(www.gap.org.uk; www.GapYear.com; www.yearoutgroup.com, etc.).

마지막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GY의 주요 효과 중 하나는 GY의 발전 과정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GY는 이후에 제시될 사례들과 달리 GY 관련 활동에 대한 학생 또는 성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산업의 발 빠른 대응이 결국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낸 경우이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인증이나 평가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까지 이어졌다는 점은 GY를 단순한 개인의 만족이나 휴식 차원이 아닌 교육과정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 (4) 심포학년제의 제한점 및 시사점

GY가 갖는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Jones(2004)는 참여자 대다수가 백인인 반면, 소수민족 출신은 거의 드물며, 대부분 중산층 배경에 사립학교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한 가지 원인은 국가 차원이 아닌 사설 기관에 의존적인 GY의 참여 구조에서 비롯될 수 있다. 더불어 이후 살펴볼 사례들과 달리 (유급이든 무급이든) 해외봉사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 수준이 좋지 않은 일부 학생 또는 성인들로 하여금 GY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참가자들은 제한적 범위 내의 활동에만 참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하여 고비용을 감수하고 GY에 참여하는데, 일부는 부적절한 재정 조달로 빚을 지기도 하는 등 심각한 문제들로 발생하기도 한다(Jones, 2004). GY에서 지적되는 또 다른 유형의 불평등은 바로 지원자 자격 요건에 관한 부분이다. 경제적 부담은 장학금이나 국가 보조 등의 외부적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장애를 가진 지원자의 경우는 그 참여가 극도로 제한된다. 이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안은 부족한 듯하다.

둘째, GY 기간 이후 기존의 형식적 교육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하는데 동기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De' th, 2002; Tonbridge School, 2003; Jones, 2004 재인용). GY는 참가자가 자신의 학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학교 교육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활동의 영역이 해외인 경우라면 학생은 전혀 다른 문화의 일상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다시금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적응하기란 쉬운 도전이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참가자들은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일부 대학에서는 GY 참여 경험을 해당 학생의 약점으로 간주하기도 하며, 기업에서도 해당 경험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이득이 없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부의 사례이기는 하나 예를 들어, 한 대학의 수학과에서는 GY 경험을 정규 학업 과정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방해 요소로 간주하여 지원자들의 GY 참여를 자제시킨다(Studylink, 2003; Jones, 2004 재인용).

이상의 제한점들 가운데 첫 번째 재정 관련 문제는 자유학기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이다.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이 있겠으나, 개별 학교의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추가적 비용 발생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현재로서는 영국에서도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GY 참여의 편차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국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앞서 살펴본 바대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마저 외부 기관들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앞서 논의한 바대로 GY는 정부의 개입이 다소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여전히 국가 차원의 주도력이나 지원 시스템이 약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에서는 자유학기제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GY가 갖는 의미 있는 측면 하나는 지난 반세기 동안 GY는 참여 대상과 프로그램 등이 초기의 형태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그 영역이 매우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즉, 현재의 GY는 성인교육과 평생교육의 개념까지 아우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유학기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진로체험 및 계발 영역은 중학교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마무리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발과 관심으로 성인교육, 나아가 평생교육의 차원으로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 2) 아일랜드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의 주요특성

### (1) 등장 배경 및 목적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이하 TY)는 지나친 학력 경쟁의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내적 성장과 지역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1974년 당시의 교육부 장관 리처드 버크(Richard Burke)에 의해 소개되었다(Jeffers et al., 2007; 김현철 2013 재인용). 15세에서 16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간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독립적 프로그램인 TY의 주요한 목표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학생들이 사회를 알게 되고 커뮤니케이션 기능, 자신감, 책무성과 같은 사회에서의 필요한 실제적인 능력을 키움으로써 인성적·사회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다 학문적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함으로써 일반적, 기술적, 학문적 기능을 발달시키고 이를 통해 학습에서 성숙하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성인사회와 직업생활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업 및 경력과 관련된 성숙을 꾀하는 것이다”(DoE, 1993: 이기봉 외 2011, p.34 재인용).

리처드 버크 장관은 TY를 제안하면서 학생들에게 경쟁의 우물에서 벗어나 1년 간 “멈추어 서서 (자신을) 응시할” (Burke, 1974; Jeffers 2013, p.13 재인용) 기회를 제공해 주어 자신과 사회에 대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돕자고 주장하였다. 현재의 TY는 학생의 성숙과 더불어 전환학년제는 교사들의 역량 증진, 지역사회의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김현철, 2013).

당시 TY 발전의 전반적 지표 역할을 한 것은 Hargreaves 등(1996)이 공동 집필한 <변화를 위한 학교교육: 청소년을 위한 교육 재창조(Schooling for Change: Reinventing Education for Early Adolescents)>였다. 더불어 Howard Gardner(1984)의 다중지능 이론 또한 TY의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Jeffers, 2013)

## (2) 전환학년제의 운영현황 및 특성

TY 도입 초기에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1974년 시행 첫 해에는 참여 가능한 800개의 학교 가운데 단 3개 학교만이 TY에 참여하였다(Jeffers, 2011). 90년대 들어 국가적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공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면서 참여 학교가 증가하게 되었다. 1993년 5명으로 구성된 실행팀(action team)과 63명의 교사로 구성된 학교지원시스템을 마련한 아일랜드는 교육부 차원에서의 TY지원시스템을 확대 및 안정화시켜 왔다. 이후 아일랜드 교육부는 상근 조직인 TY지원팀(Transition Year Support Team, TYST), TY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조직인 TYCSS(Transition Year Curriculum Support Service), 중등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Second-level Support Service, SLSS) 등을 갖추어 나갔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는 아일랜드 전체 80%의 학교가 TY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의 55%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Clerkin, 2013; Jeffers, 2013 재인용).

TY 참여 학생들의 유형을 연구한 한 연구(Jeffers, 2002)에 의하면, 여학생 참여 비율이 남학생의 참여 비율보다 높았는데, 해당 학교들은 TY 프로그램을 유료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일랜드 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Jeffers, 2011).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일부 남학생들의 경우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았고, 지리적으로도 농촌 지역의 학교에 속해 있었다.

TY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Government of Ireland, 1995; Jeffers, 2007; 김현철 2013, p.6 재인용).

- ① 학제적인 프로그램
- ② 학생 중심
- ③ 학생 스스로의 책무성 강조
- ④ 각종 시험증서를 넘어선 삶의 기술
- ⑤ 성숙의 기회
- ⑥ 학습내용의 복습과 직업선택의 기회
- ⑦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교사들의 역량 증진
- ⑧ 학교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실천적 학습 방법
- ⑨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교육적 요구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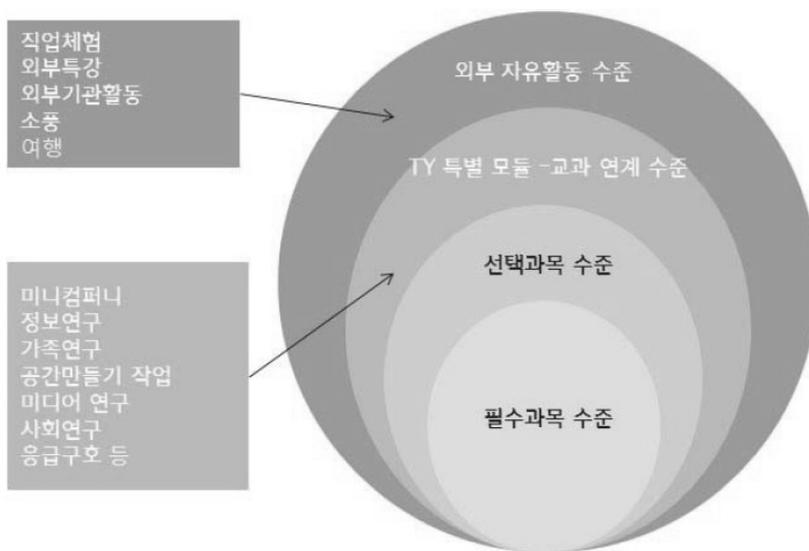
김현철(2013)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TY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는 TY 프로그램의 구성 주제를 학습, 문화연구, 컴퓨터, 스포츠, 직로적성, 시민 및 사회 관련 학습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TY 프로그램 구성은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TYST는 1990년대 말 ‘양파모델’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제안하였다. 해당 모델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교과와 연계를 이룬 TY 특별 교과, 기타 과외 자유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김현철, 2013).

Jeffers(2013) 최근 한 연구를 통하여 TY의 몇 가지 특징적인 활동들을 소개하였다. 첫째는 학생들의 직업 또는 일터 체험으로, 다음의 네 가지 주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http://www.edunet.ie/links/ireland.html>; Jeffers 2013, p.4 재인용).

- ① 특정 직업 분야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진로 지도
- ② 실제적인 직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 ③ 인간관계능력 개발과 같은 인성과 사회성 발달
- ④ 시민봉사활동 등 시민교육(지정된 현장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TY에서 실시된 또 다른 활동은 ‘미니 회사’ 프로그램으로, 이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공동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의 주제는 요리, 가구 제작, 세차, 보석 만들기, 문체 제작 등 다양하다. Jeffers(2013)는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경제적 개념 및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Jeffers(2013)에 의하면, 수학여행 자체도 좋은 TY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 여행을 통하여 또래 학생 간과 교사 간 유대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그 자체로 하나의 학습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림 II-9] TY 프로그램의 수준(양파모델)  
(Transition News, 1999; Jeffers 2007, p.265; 김현철 2013, p.7 재인용)

TY 참여를 통한 결과를 전통적인 지필고사로 평가하기란 한계가 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TY의 주된 성과 중 하나가 학생들의 소프트 스킬의 향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수치화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 평가에 불과하다. Jeffers(2013)도 학생의 성숙정도나 대인관계능력 등을 수치화하기란 어려우며, 이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좋은 평가의 대안으로 인터뷰가 포함된 포트폴리오 평가로 보았으며, 전체 과정을 마친 후 발표나 졸업 행사들을 개최하고 수료증 등을 수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Jeffers(2007)에 따르면, TY의 성장과 정착에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장려, 참여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헌신적인 보조 교사들이 지원 서비스, 교사 및 학부모를 위한 학교 및 지역 단위의 워크숍이 큰 역할을 하였다(Jeffers, 2013). 또 다른 연구(김현철, 2013)에서는 TY의 성공요인을 다음의 여덟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① 전체 학교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 ② 효과적인 코디네이터의 역할 ③ 학교 내의 리더십(TY에 대한 신뢰 및 확신)

④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⑤ 지역사회와의 협력 ⑥ 교사연구 ⑦ 학부모들과의 원활한 소통 ⑧ 다양한 혁신적 평가방법 활용(총괄평가, 체험활동보고서, 포트폴리오, 활동일지 등).

Smyth 등(2004)은 성공적인 TY를 위해서는 교사 및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기봉 외, 2011). 첫째는 가능한 모든 학교가 TY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코디네이터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TY 담당 외의 교사들과도 연계를 유지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로, 학생들이 선호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을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서는 평가에 있어서 더욱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TY의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다.

### (3) 전환학년제의 주요 효과

일차적으로 성공적인 TY를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갖는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1995년 14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한 연구는 10개 학교 가운데 9개 학교에서 교사 및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가치 있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김현철, 2013). 이러한 인식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가능했을 것이다.

TY 운영으로 비롯된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Jeffers 2007, pp.11-12; 김현철 2013, pp.12-13 재인용).

- ① 학제적인 교육, 교과 간 연계 운영
- ② TY 종료 시까지 LC(Leaving Certificate, 고등학교 졸업시험) 관련 학습의 연기
- ③ 지역사회와의 연계
- ④ 보상교육의 확대
- ⑤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더 많은 정보 네트워크 확보
- ⑥ 형성평가 개선
- ⑦ 학교 내 개혁 강화

TY 실시의 가장 긍정적 측면 중 하나는 대인기술을 통한 교우관계증진, 의사결정능력의 향상 등 학생들의 소프트 스킬(soft skills) 발달이다. 또한 Jeffers(2007)에 따르면, TY 실시로

학교 리더십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도 향상되었으며, 2년간의 TY 참여 기간 동안 학부모와 학생, 교사의 관계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다고 밝히고 있다(Jeffers, 2013). 나아가 TY는 청소년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이기봉 외, 2011; 이기봉, 2013).

TY 참여 교사들의 측면에서도 교사들의 직업적 정체성과 전문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연구(Jeffers, 2007)의 결과에 의하면, 69%의 교사들이 TY 참여자 자신들의 교사 역량 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응답하지 않은 17%를 제외하면 부정적 견해는 14%로 긍정적 답변과 큰 차이를 보였다. 김현철(2013) TY에 참여함으로써 교사들이 서로 다양한 교육적 생각과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간의 교육적 실천을 관찰하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학생 개인의 학업적 측면에서 Miller와 Kelly(1999), Smyth 등(2004)은 TY에 참여한 학생들의 졸업 시험 성취가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았다는 관찰 결과를 내 놓았다(Jeffers, 2013). 물론, TY가 학업 성취와 관련하여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러나 Jeffers(2007)는 TY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유의미 학습 또는 몰입의 경험, 즉 절정경험(optimal experience)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주목한다(김현철, 2013).

그러나 TY를 통해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다양한 변화를 명확히 파악하기란 어렵다. 나아가 TY는 총체적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그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김현철 2013). 비록 TY가 확대 및 정착된 지역 20년이 되었으나, 그 효과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4) 전환학년제의 제한점 및 시사점

TY가 안고 있는 한계는 해당 프로그램이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곧 교육 불평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Jeffers, 2002; 2013).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는 다음의 현상들과도 연관이 있다. TY 시행에 있어서 지역 또는 학교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데,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비용 부분이다. 학교 간에는 학교의 재정적 수준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학교 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Jeffers, 2007; 김현철, 2013 재인용). 아일랜드 경제사회연구소(ESRI)의 보고(Smyth 외, 2004)에 따르면, 학교의 규모가 작고 수혜를 적게 받는 지역의 학교의 경우 TY 운영에 소극적이었다. 동일한 문제는

개별 학교 내 학생들 간의 불평등도 심화시킬 수 있다.

TY의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JC(Junior Certificate, 중학교과정이수증)와 LC(Leaving Certificate, 졸업자격시험)과의 연계성에 관한 것이다. 시험과 경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존의 TY의 목적과 달리 JC와 LC가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학생들은 여전히 시험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TY과정에서도 여전히 학업과 관련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있기도 하다(김현철, 2013). 자유학기제의 경우 중학교 과정에서 실시되기는 하나 과도한 학업 경쟁의 문화와 입시제도는 TY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입시체제를 급격하게 바꿀 수 없으며, 문화 또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년간의 자유학기제가 장기적 안목에서 학생의 성숙 또는 진로 계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TY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는 만큼 국가의 경제 상황에 해당 프로그램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TY 운영에서 재정적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의 예산지원정책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TY는 1994년 예산 지원(학생당 50아일랜드달러) 시작으로 13년 동안 지원액이 늘지 않았으며, 2008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TY 지원 예산이 폐지되기도 하였다. 2011년부터 지원예산이 마련되었으나, 지원 액수는 오히려 2007년보다 적은 95유로로 줄어들었다(Clerkin, 2013; Jeffers, 2011; Education Matters, 2009; 김현철, 2013 재인용). TY의 이러한 경험은 자유학기제에 큰 시사점을 던져 준다. 정부에 따라 교육정책의 가변성이 높을 경우 자유학기제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안착하기란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물리적 시스템도 일정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Jeffers(2012)자유학기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 체험에 대한 직장 직업 체험은 청소년이 스스로의 안목을 넓히고, 삶의 기회를 확장하며, 자신의 꿈을 되돌아보거나 다시 설계하는 등 자아상과 동기를 완전히 바꿀 수는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이다. 그렇지만, 직장 직업 체험은 의도치 않게 기존 성 역할과 사회계급의 편견을 더 강화하기도 한다(Jeffers, 2012).

### 3) 덴마크 가교학년제(Bridging Year)의 주요특성

#### (1) 등장 배경 및 목적

가교학년제의 탄생과 교육적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교육이라는 더욱 큰 교육적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유교육의 사상적 모태가 된 자유주의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 사회에 대표적인 사상적 흐름인 계몽주의와 경건주의에서 비롯되었다(송순재, 2010). 더불어 낭만주의의 일부 특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관심, 민족주의의 유기체적 사고 등이 자유교육에 영향을 미쳤는데(송순재, 2010), 이 모든 사상들은 자유교육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두 인물인 N.F.S. Grundtvig와 Christen M. Kold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다소 미시적 차원에서는 덴마크의 의무교육 도입이 자유학교 등장 배경이 되었다. 덴마크에서는 주변국인 노르웨이(1827년)와 스웨덴(1842년)보다 앞선 1814년에 최초로 의무교육시스템이 등장하였는데(Jespersen, 2011), 당시 이러한 의무교육을 반대하던 이들은 의무교육제도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나아가 가정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송순재, 2010).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덴마크의 자유학교(friskole, 영어로는 independent schools)였으며, Grundtvig의 사상적 토대와 Kold의 실천적 노력으로 이루어진 포크하이스쿨(Folkehøjskoler)은 자유학교의 첫 사례로 꼽힌다.

1995년 발표된 덴마크자유학교협회(The Danish Friskole Association, 이하 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자유학교들은 5가지 측면에서의 자유를 강조한다. 첫째, 협회는 이데올로기적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자유학교의 핵심임을 밝히고 있다. 즉, 자유학교는 종교적, 정치적, 교육적 측면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둘째, 자유학교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있어서 자유롭다.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지침이 있기는 하나 그 수준은 매우 기초적이며, 교육방법은 전적으로 각 학교의 재량에 달려있다. 셋째는 경제적 측면의 자유로, 각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비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재정적 이유로 자유학교에서의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개의 자유학교들은 교육비 수준의 낮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부 경우에는 무료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재단을 구성하여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자유학교는 교직원 고용에 있어서 개방적이다. 각 학교는 다양한 교육적 철학을 토대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교사 채용의 기준도 다양하다. 마지막은 학생들이 누리는 자유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선발의 기준을 정할 수는 있으나 그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자유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교적 이념이 학교와 다르다 할지라도 부모 또는 학생의 동의하에 해당 학교에 다닐 수 있다.

가교학년제는 이상의 자유교육 및 자유학교운동과 사상적 토대를 같이 하고 있으며,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세 가지 특수한 가교학년제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가교학년제의 운영현황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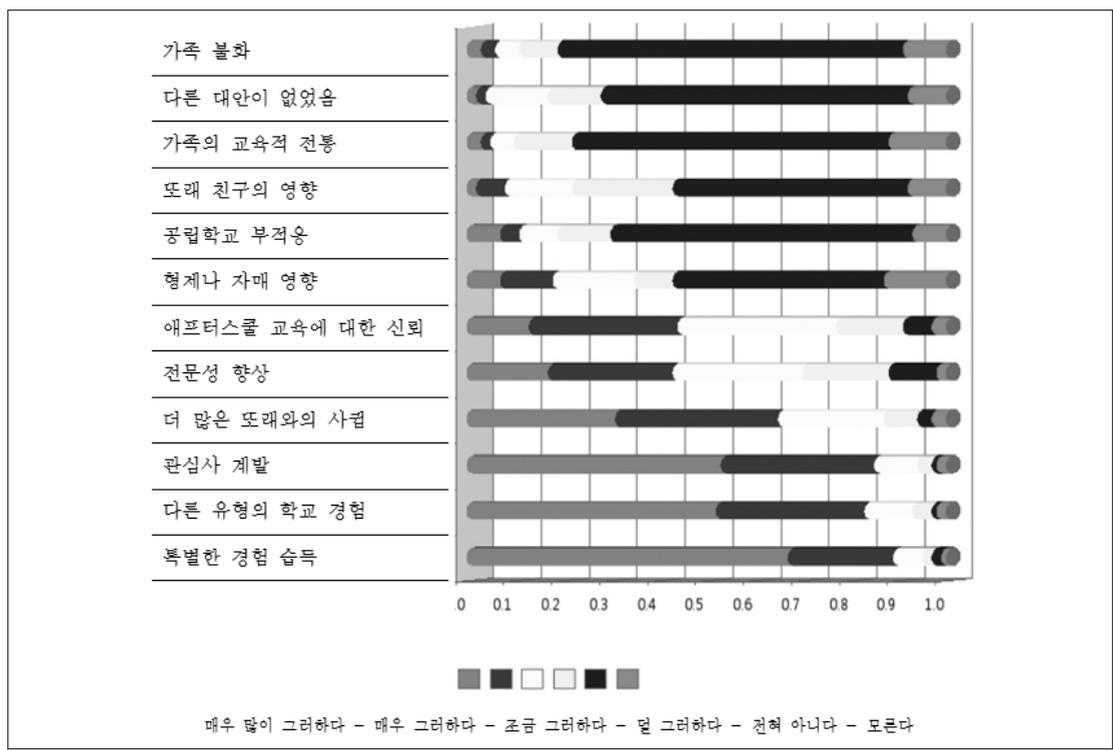
가교학년제의 유형에는 포크하이स्कूल(Folkehøjskoler), 애프터스쿨(Efterskoler), 10학년(10 Klasse)이 있다. 우선 포크하이स्कूल은 과거 농민대학, 근래에 와서는 시민대학으로도 종종 불린다. 포크하이स्कूल은 18세 이상의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유학교 발전의 모태로 평가받고 있으며, 덴마크의 수준 높은 민주주의에 공헌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송순재, 2010). 포크하이स्कूल의 핵심적인 교육 목적은 다음과 같다(www.hojskolerne.dk; Katznelson 2013, p. 113 재인용).

- ① 인성 발달: ‘포크하이स्कूल’은 학력, 거주지, 종교, 정치신념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므로 학생들은 새로운 생각과 사상의 도전을 받는다.
- ② 사회성 발달: 많은 이들이 평생친구를 사귀고 어떤 이들은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기도 한다.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사람들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 ③ 전문성 발달: ‘포크하이स्कूल’은 다양한 과목과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전문성 습득의 공간이다. 이를 통해 진로 선택을 위한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자긍심, 자신감, 행복감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포크하이स्कूल의 교육과정은 법에 따라 시민교육, 민주교육, 인생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있다(Katznelson, 2013). 그러나 자유학교의 특징답게 각 교육기관에 따라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다. Danmarks Statistik(2013a)의 보고에 따르면, 일반과정이 가장 많이 개설되었으며, 스포츠, 전문과목, 종교, 가사, 생활, 청소년 순으로 과목들이 개설되었다(Katznelson, 2013). 또한 2011년과 2012년 두 해 동안 9277명이 포크하이स्कूल을 다녔으며, 약 12주 이상의 과목을 수강했다. 재학생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았으며, 사회활동 참여 빈도가 많고, 대도시 외곽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다. 포크하이स्कूल의 학생은 주당 1,300DKR(한화로 약 25만원)을 교육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재정지원의 기회가 있다(장학금, 지자체 지원, 저학력 학생을 위한 특별 지원 등)(Katznelson, 2013). 포크하이स्कूल 진학 이유로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도 진학 준비, 전문성 계발, 학교나 직장으로부터의 휴식 등이 있었다(Capacent Opinion, 2008; Katznelson 2013, 재인용).

다음으로 14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하는 애프터스쿨 기숙사 학교로서 초기에는 종교단체, 노동자단체, 종교단체, 교육단체 등에 의해 다수가 설립되었다. 근래에는 영재나 학습 부진아들을

위한 특수한 목적을 토대로 한 학교들과 예술교육, 환경교육 등 특정 교육 주제를 중심으로 한 학교들이 등장하고 있다(송순재, 2013). 현재 257개의 학교에 28,5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학교의 규모는 평균 100명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www.efterskole.dk; Katznelson 2013, 재인용). 257개 학교 가운데 일반 학교이며, 21개 학교는 난독증 학생, 18개 학교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이다. Damvad(2012)와 Katznelson(2013)에 따르면, 애프터스쿨의 재학생들은 9학년의 경우 공립기초학교에 비해 부모의 학력이 높았으며, 2년 내 상위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의 수가 다소 적은 특징이 있었다. 반면, 10학년의 경우 9학년과 마찬가지로 혹은 더욱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저학력의 부모를 둔 학생들은 극히 적었다. 또한 애프터스쿨을 수료한 이후에 상위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애프터스쿨은 포크하이스쿨보다 재정적인 부담이 더 큰 편이다. 개별 학생들은 주당 2,000DKR(한화로 약 4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물론 애프터스쿨의 경우도 해당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Katznelson, 2013). 학생들이 애프터스쿨을 선택하는 이유는 특별한 경험 또는 학교의 정규 교육 외의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는 목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Katznelson, 2013).



[그림 II-10] 애프터스쿨 진학 동기(Katznelson 2013, p.104)

다소 근래 등장한 10학년은 진로 탐색과 진학 준비라는 상대적으로 분명한 성격과 목적을 갖고 있다. Katznelson(2013)은 학생들이 학교에 더 머무는 것이 진학과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준다는 신념이 당시 덴마크 교육의 하나의 트렌트였으며, 1990년대 중반 69%의 학생들이 10학년에 등록한 사실을 주목한다. 동일한 보고에 따르면, 10학년의 교과과정은 필수과목(덴마크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수학, 물리, 화학 등)과 3개의 추가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시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주 동안의 직업 훈련을 받기도 한다. 10학년이 포크하이스쿨과 애프터스쿨과 가장 큰 대비를 이루는 점은 수업료가 없다는 점이다. 교육비는 지역자치단체로부터 전액 지원이 된다. 아래는 포크하이스쿨, 애프터스쿨, 10학년의 주요 특징들을 요약한 표이다(Katznelson, 2013 참고).

<표 II-14> 덴마크의 가교학년제의 유형 및 특징

	포크하이스쿨	애프터스쿨	10학년
설립시기	1844년	1879년	1962년
설립목적	좋은 시민 양성 자유로운 교육환경 조성	일반적 양육 및 교육 인성발달과 성숙	상위학교 진학
교육철학	N.F.G Grundtvig의 교육철학(실용적 학습 강조) Christen Kold의 교육사상		학교에서의 학습이 학업 성취와 진로 선택에 효과적이라는 교육적 트렌트 기반
대상	18세-24세	14-18세	공립기초교육(9학년)을 마친 학생
기간	평균 4개월(4일-36주)	1-3년	1년
형태	비형식적 교육기관	자치적 자립형(기숙형)	공립(지자체 소속)
교육내용	인생교육, 일반교육, 민주시민교육		일반교육, 인턴십, 직업현장체험 등
교육방식	개별 학교 및 교사 재량		필수과목 및 연수 등 일부 형식적 교육 포함
재정지원	주당 1,300DKR (미화 230달러) 장학금 등 추가지원 가능	주당 2,000DKR (미화 350달러)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국가 지원	지자체 지원 (학생 부담 없음)
운영현황	78개(단기 참여자 연간 4만 5천명, 장기 참여자 8천 명)	257개(일반 218, 난독증 21, 특수 19)	9학년 졸업생 45% 등록 (2012년 기준)
주요특징	입학조건과 시험 없음 초기에는 일부 문해교육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자기계발에 집중	실용예술 강조 오전은 강의 위주, 오후는 요리, 스포츠 등 사회적 활동 중심으로 운영	문해율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음

### (3) 가교학년제의 주요 효과

가교학년제의 주요 이점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포크하이스쿨의 경우 학 학기 포크하이스쿨을 다닌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apacent Opinion, 2008; Katznelson, 2013 재인용). 그러나 고려할 사항은 포크하이스쿨을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이며, 경제력에 높을수록 학력이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크하이스쿨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Katznelson, 2013).

애프터스쿨의 경우 학생들의 전문성 계발, 자기존중감 증진, 자신감 형성, 공동체 정신을 통한 자존감 등이 발달된 것으로 밝혀졌다(Oettingen et al 2011; Hansen, 2013, Katznelson, 2013 재인용). 또한 Danvad (2012)는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의 사회적 이동성이 개선되었고 밝히고 있다(Katznelson, 2013). 10학년을 다닌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이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학업 성취나 개인적 성숙, 사고의 명확성에 있어서 향상을 나타내었다(Katznelson, 2013).

### (4) 가교학년제의 제한점 및 시사점

세 가지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이 갖는 특징이자 한계는 재정지원 부분에 있다. 포크하이스쿨과 애프터스쿨의 경우 일부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그 외에는 해당 학생의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실제 Eurydice (The information network on education in Europe: 유럽교육정보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자료(The Education System in Denmark 2006/07)에 의하면 애프터스쿨에 진학하는 경우 교육비와 숙식비 등의 약 33-50%를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다(OECD, 2007). Katznelson(2013)에 따르면, 포크하이스쿨과 애프터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는 고학력인 반면, 10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 교육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학력 수준과 경제적 수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는 가정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필연적 선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OECD(2007) 자료에서도 일부 애프터스쿨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저임금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포크하이스쿨과 애프터스쿨을 그 설립 배경 상 대부분 시골이나 지방도시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OECD, 2007). 기숙사형의 애프터스쿨은

학생들이 자립심을 기르고 자아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교사 및 학생 간에 지나치게 친밀하고 격 없는 관계 형성으로 인한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OECD, 2007).

다음은 바로 교육의 질, 구체적으로는 교사의 자격과 관련한 문제이다. 앞서 자유학교의 특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학교는 학교의 교육적·정치적·종교적 이념 등에 따라 교사 채용 자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자유학교의 근무 교사들은 교육대학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전혀 교육적 훈련 경험이 없는 경우도 있다. 교육방식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까지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일부 부모들에게는 교사들의 교육적 자질을 의심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일부 자유학기제에 시사점을 제시해 주는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부모와 학생 모두가 신뢰할 만한 체험 환경과 인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0학년제는 포크하이스쿨과 애프터스쿨, 그리고 앞서 살펴본 영국의 GY와 아일랜드의 TY와 성격을 극명히 달리한다. 대개 자유교육 또는 대안교육의 교육사상적 흐름에 놓여 있다면 10학년제는 오히려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듯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우수한 학교로의 진학은 여전히 많은 학생들의 관심사이고, 이를 위한 특정 교육과정을 마련한 것은 분명 새로운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4) 국외 청소년 체험활동 탐색에 따른 시사점

위 사례들을 통하여 관련 주체들을 중심으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차원의 정책과 지원의 중요하다. 관련 정책과 인력 및 예산지원 등 국가의 지원은 되도록 일관되어야 한다. 덴마크의 10학년의 경우 초기에는 공립기초학교에서 실시되었다가 이후 새로운 법 개정으로 지역자치단체에서 이를 관할하게 되었다(Katznelson, 2013). 이는 곧 지자체로 모든 10학년 지원 학생들이 모이게 되는 형태로, 근본적으로는 학교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는 해당 학교들과 교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꾸준한 노력은 관련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로 하여금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갖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 단, 이는 단기간에 기대할 수 있는 성과는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일랜드의 사례처럼 학교와 교사, 학부모와 학생, 또는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국가 차원의 워크숍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직업체험의 경우 일터 혹은 체험장 포함)는 지역 공동체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방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KPGM(<http://www.kpmgcareers.co.uk/>)의 인적사무국장인 Paul Vance는 어린 세대에서 어른들의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지역사회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아일랜드의 사례와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셋째,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담당 교사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학교장의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 넷째, 교사들은 코디네이터 등과 적극 협조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추가적 업무가 아닌 교사들 스스로의 역량 계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학부모의 지원이다. 기존의 경쟁적 구도의 입시제도가 유지되는 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업 성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학부모 집단 자체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므로 학부모들의 적극 지원과 개입은 자유학기제의 성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태도를 갖고 임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및 적용, 실행할 때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자유학기제 시행에 있어서 그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외국 사례를 방하거나 국내의 교육적 환경을 무시한 채 여러 사례의 이점을 무조건 적용하는 방식도 옳지 못하다. 학교활동, 학업활동, 갭이어와 유사한 직무경험활동 등을 섞어놓은 듯하다는 Jones(2013)의 지적처럼 자유학기제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한국교육이 갖고 있는 기존의 좋은 사례 또는 연구 결과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강기수(2013)는 ‘하자센터’의 교육적 실험이나 우리나라의 기존 대안학교나 혁신학교 사례를 이러한 과정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인력 또는 일터를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Jeffers(2013)의 경우는 아일랜드의 사례를 토대로 유명 인사들을 초대해 특강을 제안하고 있는데, 아일랜드의 경우 특강 연사들은 이를 사회 환원의 기회로 여기고 적극 참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구성에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일터 개방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되겠으나, 기관 또는 참여 인물들로 하여금 그들의

참여와 공헌이 작게는 한 개인 학생과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임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모든 해외 사례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이다. 덴마크의 10학년과 같이 모든 비용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안정되어 보이기 는 하나, 아일랜드의 사례처럼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원이 삭감 혹은 폐지되는 등 불안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를 학생 또는 가정이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사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논란의 소지가 있겠으나, 각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애프터스쿨의 경우가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감사와 학생들의 평가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Gerry Jeffers와 아일랜드 교육부 TY 코디네이터 Michael O'Leary는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각 학교의 TY 운영 실태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단, 여러 문헌(정진철, 2013; 이기봉 외, 2011)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평가에 있어서는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덴마크와 영국보다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도 정착까지는 약 20년의 기간이 걸렸다. 또한 아일랜드의 사례처럼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시험 형태와 다른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를 국가차원에서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평가하고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체계적인 평가기준이 필요로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학기제 활동의 평가 방식이 학생들에게 또 다른 유형의 시험 및 평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제 3 장



## 연구결과 :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방안

1. 자유학기제를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 모형
2.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의 활성화 전략



## 제 3 장

# 연구결과

### :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방안

#### 1. 자유학기제를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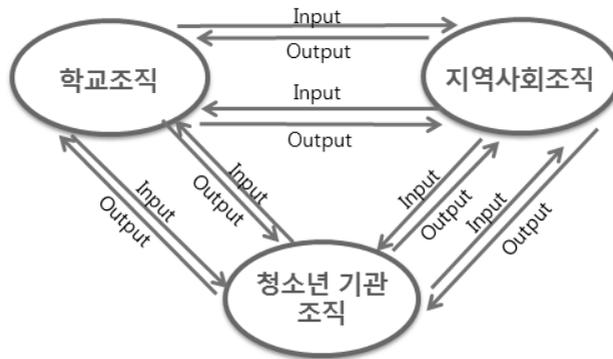
##### 1) 자유학기제를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의 기본 개념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 청소년 체험활동 정책이 자유학기제에 안착되어 성공하기 위한 핵심 주요이슈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의 참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통한 주도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회의 변화는 사회를 둘러싼 조직체제, 즉 청소년 기관 조직(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부 등), 학교조직(학교장, 교사, 행정지원자 등), 학교지원조직(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등)의 동시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학기제라는 변화에 대하여 각 조직은 능동적 합의를 통하여, 청소년 기관과 학교와의 연계를 넘어 보다 넓은 사회기관 예컨대, 기업이나 지자체, 지역사회협의체 등과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연계 시스템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청소년 체험활동 정책을 자유학기제 정책 내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sman(1972)이 언급한바와 같이, 각 조직이 생존력, 자율성, 영향력의 파급효과를 가지면서 각 조직 간의 주요 결과물들을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시스템은 마침내 그 사회의 규범적 가치에 수용되고, 그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부여받아 지속가능하게 된다.

자유학기제에 따른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이 생존력, 자율성, 영향력의 파급효과를 가지면서 각 조직 간의 주요 결과물들을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정책기반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단위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단위의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기관조직, 학교조직, 지역사회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input과 이를 활용하여 산출하고자 하는 output의 개념이 명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조직이 지역사회조직의 결과물을 활용(input)하고자 한다면, 학교조직은 이에 대하여 지역사회조직에 새로운 결과물을 제공(output)을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조직 또한 학교조직의 결과물을 활용 (input)하고자 한다면, 지역사회조직은 이에 대해 학교조직에 새로운 결과물을 제공(output)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간의 input은 새로운 output을 창출하고, 새로운 output은 또 다른 조직의 input이 되어 또 새로운 output을 창출하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구축되었을 때 하나의 사회조직 시스템으로써 생태계적 환경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관계의 시스템에 구축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외부적인 환경의 강제적인 요구 또는 한 조직의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결과물의 제공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는 생존력, 자율성, 그리고 파급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장기적 차원에서는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해 진다. 즉, 조직간 선순환구조의 시스템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직 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각 조직사회의 자체적인 체질개선과 능동적인 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외부환경의 적극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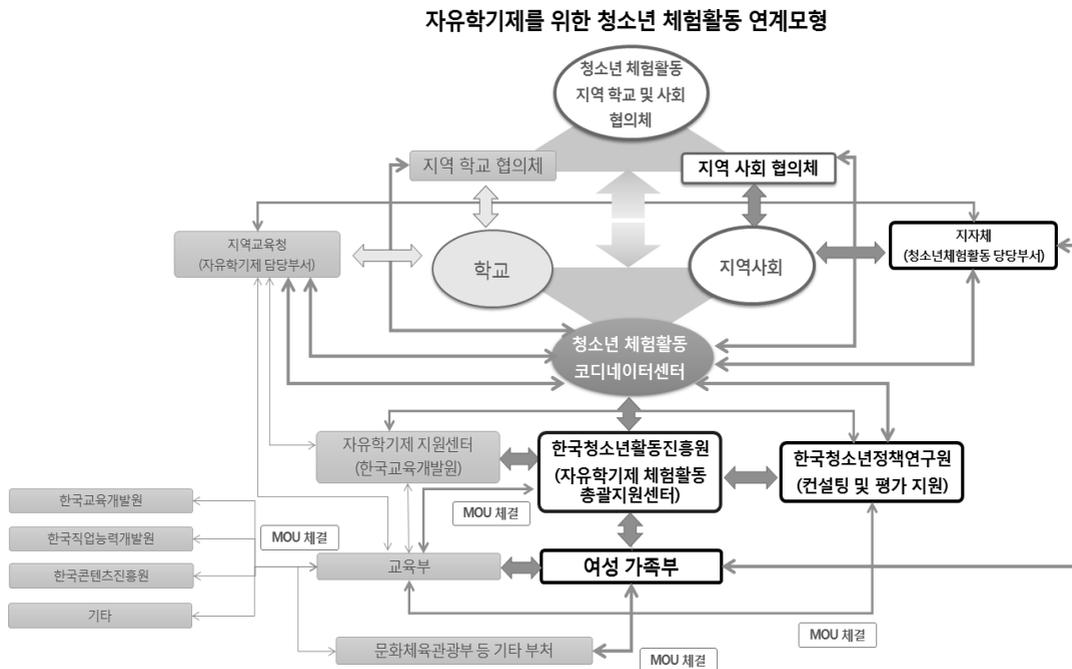


[그림 III -1] 자유학기제에 따른 지역단위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의 기본적 개념 구조도

청소년계 입장에서 자유학기제의 주요 정책기조가 시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찾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였을 때,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전문가와 다양한 인프라 및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체험활동 관련 기관조직과 연계하고자 하는 국가조직(교육부), 지역학교조직, 그리고 지역사회조직의 많은 관심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청소년 체험활동이 학교 밖의 활동으로 간주되고, 학교와 지역과의 연계가 부족한 현실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 자유학기제라는 정책과 맞물려 청소년계가 가지고 있는 휴먼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 및 운용함으로써 청소년 체험활동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계의 입장에서 보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해 청소년 체험활동이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연계 시스템 모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선행문헌 분석, 학생, 교사, 청소년 전문가, 지역사회 전문가 등의 요구분석을 통하여 자유학기제를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 모형의 틀을 [그림 Ⅲ-2]와 같이 구안하였다.



[그림 Ⅲ-2] 자유학기제를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 모형의 틀

앞서 진술한바와 같이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의 기본 개념은 국가수준의 정책기반 아래 실제적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단위중심의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체험활동의 실제적인 연계는 국가수준의 정책적 연결점들을 기반으

로 하여 지역단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학교조직, 지역사회조직, 그리고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안) 등의 긴밀하고도 원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때 지역단위 중심의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의 구축되는 조직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가 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체험활동은 학교의 안과 밖을 구분하여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은 학교중심의 체험활동으로 학교 밖의 다양한 체험활동 관련 전문가들과 인프라 및 교육프로그램 등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오거나, 학교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자유학기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학교 안과 밖의 체험활동의 경계가 무너지고, 오히려 학교를 벗어나 학교 밖으로 체험활동의 무게중심이 이동되면서 학교 밖의 다양한 인적자원, 물적자원, 그리고 교육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의 체험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을 연결하여 보다 청소년 정책활동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 체험활동 시스템의 핵심조직은 지역단위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를 신설 혹은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는 국가 청소년정책 및 교육정책을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써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학교조직과 지역사회조직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학교조직만으로는 외부자원의 인적, 물적,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지역사회조직은 아직까지 이러한 자유학기제 도입의 취지나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는 학교조직과 지역사회조직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양한 직업체험 일터의 발굴, 전문 직업 멘토인력풀 구성,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인프라 및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지역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연계지원, 진로인식·탐색·설계를 위한 컨설팅 제공(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학교 및 지역사회 협의체 조직 및 운영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한편,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를 위해서는 각 조직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조직은 지역학교들을 중심으로 지역학교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장 중심의 자유학기제 운영방침 및 교육과정의 공유 등이 필요하고, 교사들 중심의 다양한 직업체험 일터 발굴 사례 공유, 체험활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유 등 다양한 교육적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지역학교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이라는 가치를 확산시켜, 지역사회협의체장이나 직업멘토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학습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각각의 노력을 위해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학교 및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들의 자발적인 학습공동체가 이루어져 자생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코디네이터 센터 및 지역 학교 및 사회 협의체를 조직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상위 조직인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국가의 상위조직기관으로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연계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 조직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의 확보 및 배정, 청소년지도사의 체험활동 지원 역량 제고를 위한 질관리, 청소년 체험활동 관련 인프라의 개선 및 확대,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비롯하여 교육부 및 다른 부처와의 연계 속에서 자유학기제라는 정책을 청소년 정책과 연계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지역단위 코디네이터 센터(16개 시도에 신설 및 지정(안))를 총괄지원, 운영 및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지역단위 코디네이터 센터의 예산지원, 역량강화 및 질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단위 센터의 예산지원은 여성가족부와 긴밀한 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지만, 자체적으로 보다 역량강화 및 질관리 즉, 청소년 체험활동 전문가들의 역량증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및 개발 등을 통해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수련활동진흥제나 영역별 청소년 체험활동 포상제 제공 등과 같은 평가활동을 통해 우수한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이나 수련기관, 그리고 우수한 청소년 체험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평가하고 포상함으로써 보다 나은 질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은 각 조직의 공동목적으로 기반으로 서로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네트워크의 관계 속에서 시너지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각 연계시스템을 연결하고 있는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 2) 자유학기제를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 별 각 조직의 기능과 역할

자유학기제를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하기 위하여 주요 핵심 조직 시스템을 중심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지역거점 단위 중심의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안)의 운영 역량 강화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시스템들이 유기적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각 지역수준의 조직과 국가수준의 조직과 긴밀한 상호작용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체험활동이 자유학기제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단위의 조직형성의 기반이 되는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안)’의 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 체험활동 전반운영에 대한 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선행문헌분석, 각계 전문가 인터뷰 등의 결과에서 분석된바와 같이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2009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해 온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학교 밖 즉, 지역사회로의 관심을 돌리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창의적 체험활동의 무게 중심은 학교 안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해왔던 주체 즉, 청소년 기관의 역할은 단순히 청소년 시설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활동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청소년계의 입장에서 가장 주요한 이유는 청소년 기관이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청소년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역량을 증진시키지 못한다면 청소년 체험활동이 자유학기제와 연계되리라 쉽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유사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학기제는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과 성격과 유사한 특성이 있기 하지만, 기본 철학과 취지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보다 학교 안에서 머물지 않고, 학교 밖으로 적극적으로 나가 다양한 사회의 자원들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게하여 청소년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학기제 정책이 보다 청소년 체험활동과 긴밀하게 연계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기관은 체험활동에 대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입장을 뛰어넘어 다양한 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과

지 제공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 기관의 역할은 ‘체험활동 프로그램 Provider(제공자)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Coordinator(조정자)’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안)’을 선정 혹은 설립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는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하여 수평적으로 단위학교조직(지역교육청, 학교, 지역학교 협의체(학교장 조직, 교과연구회 등) 등)과 지역사회조직(지자체, 지역사회 협의체, 청소년 시설, 지도자, 전문가, 예산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직적으로는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를 지원 및 관리하는 상위조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과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각 조직을 원활하게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는 청소년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혹은 지역단위 학교와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상담센터 등의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기관,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설립 혹은 어느 시설, 기관,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하던지 간에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센터로서의 역량과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학기제에 따른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를 위하여 지역거점중심의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Esman과 Blase (1966), Blase (1973) 등은 공식적인 기관이 형성되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부변인과 외부변인이 상호작용이 유기적으로 발생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관 내부변인은 리더십, 절대운영원칙, 프로그램, 자원 내부구조 등의 변인이 있으며, 외부변인으로는 실현적 연결점, 기능적 연결점, 규범적 연결점, 확산적 연결점 등의 변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기관 내부변인에 따라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주요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리더십(leadership)이 필요하다. 리더십은 코디네이터 센터를 공식적으로 이끌어는 책임자 혹은 관리자뿐만 아니라 기관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기획, 조직화, 방향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가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지역거점중심의 청소년 기관으로서의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정책과 청소년 체험활동 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있어 대표자로서 정책을 결정하여, 정책 집행상의 조정과 통제를 담당할 수 있는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 운영원칙(doctrine)이 요구된다. 이는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신생 코디네이터 조직기관을 움직이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코디네이터 센터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행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근본적인 가치·목표·운영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대적 운영원칙은 센터 구성원간의 공동목표가 설정되고, 동기가 부여되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표준이 된다. Esman (1967)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이러한 절대적 운영원칙을 만들고 이를 일관성 혹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일이라 강조하였다.

셋째,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는 양질의 프로그램(program)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코디네이터 센터가 결과물을 산출하는 활동으로써 센터가 가지는 기능과 서비스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이때 프로그램이란 단순히 교육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센터활동을 지원하는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모든 직원들의 역량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제공에서 부터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한 학교 및 단체(교사연구회, 지역사회협의회 등) 컨설팅 제공 또는 지역단위학교와 지역사회의 기업간 매칭지원능력 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넷째,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resources)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원은 센터의 모든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기반적 요소가 되며, 각종 시설, 인력을 비롯하여 예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원은 수량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가지지만 어디에서 이러한 자원이 투입되느냐하는 자원투입원천의 성격이나 지위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예컨대,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 운영을 지자체 혹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나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여 각종 자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혹은 지역교육청으로부터의 자원을 지원 받을 수도 있다. 보다 바람직한 자원의 획득은 다양한 자원투입원천지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센터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는 내부구조(internal structure)가 견고하여야 한다. 이는 센터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형성된 조직의 가치관과 습관 또는 행동양태를 의미하게 되며, 이러한 내부구조 조건들은 센터의 기능과 권한의 분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의사결정과정, 또는 공식적·비공식적 인간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이라는 큰 개념 속에서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가치관과 이념에 대한 일체감이 형성되어야 하고 행동에 대한 일관성과 적응성이 동반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관 외부변인에 따라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실현적 연결점, 기능적 연결점, 규범적 연결점, 확산적 연결점 등의 주요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는 실현적 연결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코디네이터 센터의 활동에 대한 권한과 자원을 통제하는 외부조직이나 외부집단과의 연계를 의미한다. 이는 코디네이터 센터가 생명을 갖게 되는 초기단계에 보다 요구되는 사항이며, 센터에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통제하는 다른 실체들 예컨대, 센터 운영의 예산을 지원하는 상위조직, 그리고 매칭펀드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가장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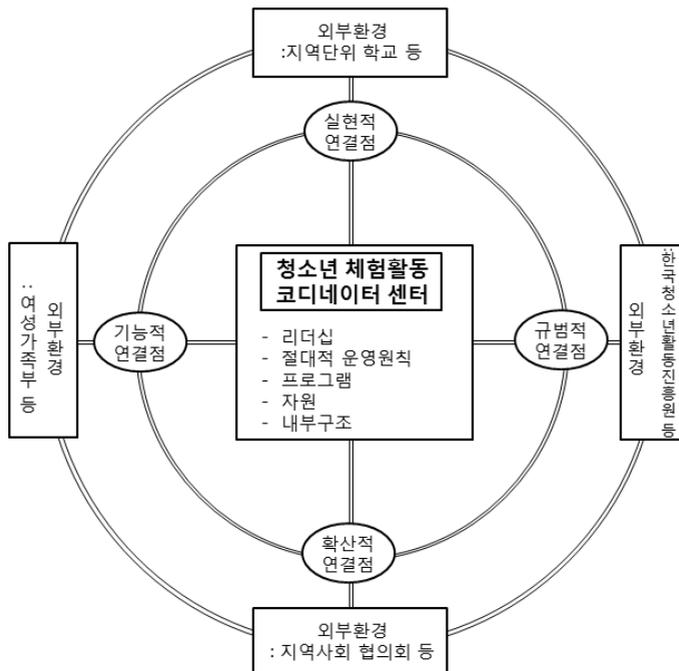
둘째,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는 기능적 연결점을 확장시켜야 한다. 이는 코디네이터 센터의 결과물 즉,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 컨설팅 전문가, 청소년지도사 혹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활용 등을 사용해 주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 기관이나 조직, 또는 잠재적 경쟁을 하게 되는 조직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지역단위 학교는 코디네이터 센터가 반드시 관계를 확장하여 기능적 연결점을 확보해야하는 1순위의 조직이 될 수 있다. 잠재적으로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지역단위 학교장들의 협의체나 교사들의 연구회, 그리고 지역사회협의체 등의 조직기관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코디네이터 센터는 지역단위 학교의 기관장이나 체험활동 담당 교사들을 운영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역학교 협의체(학교장 운영협의회, 교사연구회 등) 등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잠재적 경쟁을 하게 될 수 있는 사설 청소년 체험활동 수련원이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조직이나 기관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는 규범적 연결점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규범적 연결점은 코디네이터 센터의 운영 목표나 운영지침 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가치나 정서를 가진 다른 조직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기능적 연결점에 따른 조직들과의 관계와도 중복되지만 다른 차원의 연결점은 적대적인 조직과 대립할 수 있다는 점이 기능적 연결점에 따른 조직들과의 특성과 차별성이 있다. 우호적인 관계 혹은 긍정적 경쟁적인 관계는 상호지원적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의 가치를 확산 발전시킬 수 있지만, 적대적 관계는 코디네이터

센터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코디네이터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체계성, 그리고 센터 운영활동의 일관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는 확산적 연결점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확산적 연결점은 새로운 조직과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여론과의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코디네이터 센터는 자유학기제 관련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가치와 철학, 체험활동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결과들을 신문, 잡지, 라디오, TV 또는 인터넷,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활용하여 그 가치를 공유하고 홍보함으로써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유학기제에 따른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하기 위하여 청소년계 입장에서 지역거점 중심의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의 자체 역량증진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둘러싼 외부조직의 지원과 협조 또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이 생존, 발전하기 위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Ⅲ-3]과 같다.



[그림 Ⅲ-3] 자유학기제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개념도

## (2)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조직의 체질개선과 변화

자유학기제의 성공과 실패는 자유학기제를 실제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조직의 체질개선과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정책 또한 이러한 변화의 궤를 함께하여야 하며, 지역단위 학교의 체질개선 및 변화만으로는 자유학기제가 성공할 수 없음은 명백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조직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국가수준의 정책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자원을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학교조직의 변화가 없다면, 자유학기제는 교사들에게 또 다른 업무의 하나일 뿐이고 따라서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성공적인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교조직 구성원들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여야 한다. 학교조직의 구성원은 학교 운영자와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까지를 포함하며, 이들에 대한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자유학기제의 가치와 철학적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자유학기제에 따른 청소년 체험활동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일차적으로 학교운영자와 교사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유학기제 혹은 체험활동 담당 교사만의 업무가 아니라 학교업무와 학교교육과정 자체를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차적으로는 자유학기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 자유학기제의 주체는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학습에서뿐만 자유학기제에 따른 청소년 체험활동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학부모들은 체험활동을 단순히 ‘스펙’ 을 쌓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또한 ‘스펙’ 을 쌓기 위한 도구나 사교육을 통한 ‘학력보충’ 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부모에게 자유학기제에 대한 의미와 체험활동의 취지 및 태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자유학기제의 본질을 공감하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학교 밖의 다양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제는 청소년 체험활동이 학교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학교 밖으로 나가 사회의 다양한 직업세계와 전문가들을 만나고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체험활동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조직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거점중심의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조직의 각 담당자들 예컨대, 학교운영 담당교사(혹은 진로교사),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의 코디네이터(혹은 청소년지도사), 지역사회 멘토그룹 운영자, 지자체 청소년 체험활동 담당자, 지역교육청의 자유학기제 담당자들과의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한 지역학교 및 지역사회 협의체(안)’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학부모 단체를 적극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에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한 차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조직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구모임을 운영하여 아이디어와 자료, 자유학기제 및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 우수사례 등을 공유한다면 네트워크형성에 보다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유학기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교사들의 자유학기제 운영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은 학교이자 교사들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를 활용한다하더라도 체험활동을 하고자하는 학교의 수요가 많아지면 지역사회의 부담은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는 이러한 학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김현철, 2013)<sup>1)</sup>. 그렇다면, 결국은 제한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과 더불어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교사역량을 개발하여야 한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처럼 교과통합적인 체험활동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을 통해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과통합적인 체험활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역량과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역량을 신장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적 청소년 참여중심의 자유학기제 운영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유학기제의 주체는 청소년이다.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동기화되어 참여함으로써 미래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실시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의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동아리 활동은 임의적으로 배치되어 집단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본인의 관심, 흥미, 그리고 끼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진로체험활동과 연계시켜 다양한 지역사회의 전문가들 및 자원들과 교류하고 이를 학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는 목표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진로체험활동의 운영 현황과 실천과제. 20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와 같이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학교조직의 체질개선과 변화는 모든 조직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조직의 체질개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개선과 변화가 선행 혹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자유학기제의 청소년 체험활동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자유학기제 성공을 위한 지역사회조직의 협조적인 분위기 조성

자유학기제와 유사한 대부분의 체험활동 정책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없이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 자녀가 성공적으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 직장을 연결해 주고,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직업체험에 대해 우호적이고 이를 도와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현철, 2013;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이와 같이 자유학기제 성공의 열쇠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어떠한 연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과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의 노력, 그리고 다양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들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일터를 개방하여 직업체험활동의 장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체계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하고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 등이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학기제가 성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지역 청소년들은 우리지역사회에서 책임을 진다는 가치를 공유하여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한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 이는 힐러리 클린턴이 학교교육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호소하며 회자되었다고 한다(성은모, 2013). 이는 곧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해당지역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지고 지원해야한다는 가치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지역 청소년들은 우리 이웃의 자녀이자 형제자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찾아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우리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이 높아져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인식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자유학기제를 위한 단순히 일터제공을 넘어서 학교와 사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재육성이라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조직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협의체의 역할은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사회의 연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사회에서 자유학기제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 국가수준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유학기제의 청소년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지역 내의 기관, 업체, 일터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이에 대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인센티브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방식도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일터 개방에 대한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학교조직과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 조직 담당자들과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조직의 협조적인 분위기가 우선적으로 조성된다면, 눈에 보이는 조직 시스템간 ‘주고받는’ 상호작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고받는’ 상호작용적 관계 즉,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우리지역의 청소년이라는 생각으로 친밀감과 사회적 책임감이 높아져 청소년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자유학기제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체험활동 총괄지원센터, 컨설팅 및 평가 조직 강화

지금까지도 청소년 정책은 학교 안의 정책과 학교 밖의 정책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학교 안은 교육부 소속의 정책이고 학교 밖은 여성가족부 정책으로 분리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유학기제는 학교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어뜨렸으며, 청소년을 올바른 국가의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안과 밖의 정책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비록 교육부의 주요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그 정책은 교육부만의 정책이 아니며, 교육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체험활동 정책의 영역을 보다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유학기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청소년 체험활동 정책을 지역사회와 학교 안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관계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 체험활동이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문화체육관광부나, 노동부 등과 연계를 통해 청소년 체험활동 정책이 보다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몇가지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청소년 체험활동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략 수립하여야 한다. 자유학기제의 정책이 시작되는 지금 이 정책이 보다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처럼 앞으로 수년 혹은 수십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지금부터 그리고 그 때까지 자유학기제와 유사한 정책(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이)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쉽게 예측한다면, 여성가족부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청소년 체험활동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은 여성가족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목적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임무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기초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전담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 체험활동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자유학기제 정책 속에서 청소년 체험활동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전담부서의 기능은 단순히 청소년 체험활동의 지원이 아니라 청소년 체험활동을 진두지휘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역량을 증진시켜, 국가수준에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전략을 제공하여야 한다. 예컨대,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양성 혹은 청소년지도사의 역량 개발에 대한 정책이나 다양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청소년 관련 시설의 효과적인 검증을 통한 지역사회 활용 촉진 정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의 청소년 체험활동이 활성화되고 그 안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나 다른 청소년 기관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여 재가동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청소년 체험활동의 중요성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대국민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결국,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며, 국민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뿐만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들의 교육 및 모임을 활성화하고 각 지역의 시민단체가 청소년 관련 단체들의 자율적 참여를 촉구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단위로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청소년 체험활동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와 이를 효과적으로 컨설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역할이 보다 더 강조될 수 밖에 없다. 물론 다른 기관이 이러한 컨트롤 타워와 컨설팅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현장에서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인적, 물적, 교육자원을 운영 및 관리하고 청소년 관련 주요 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평가를 담당해 온 주요 핵심기관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기 때문이다. 이 두 조직은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주요 17개 시도의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사업을 지원, 운영, 관리 및 평가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두 조직은 각 지역의 청소년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각 조직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17개 시도에 지정되어 있는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에 대한 총괄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여성가족부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설정하되 단기적인 성과지표를 계량적으로 표현하여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도록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센터 역량의 증진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강화와 코디네이터 역량강화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강화는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이끄는 리더들과의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다양한 일터발굴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은 청소년 체험활동과 반드시 연계하여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외부적 조건과의 실현적, 기능적, 규범적, 확산적 연결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디네이터 역량강화는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을 연계시키는 핵심인력으로써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형성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즉, 다양한 인적자원 예컨대, 학교교사, 지역사회 전문가, 학부모 및 일반 지역사회 주민 등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코디네이터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매칭을 시켜주는 것을 비롯하여,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학교에 제공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코디네이터 역량을 강화는 중요한 이슈이며, 이를 위해 역량있는 코디네이터의 선발과 육성, 활용을 포함한 교육적 노력, 행정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관리 시스템(YMS, Youth activity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YMS는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활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17개 시도 지역의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와 연결되어 각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주요 활동들을 확인 점검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상호연결하여 즉각적으로 문제해결 및 다양한 자료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의 인적자원과 지역사회자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원거리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YMS는 자유학기제 지원센터와 연계되고 각 지역별 학교와도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을 포함할 수도 있다. 자유학기제 지원센터와 각 지역의 학교, 전국의 체험활동 센터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면 보다 다양한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연안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처함으로써 보다 실천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에 대한 컨설팅과 평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유학기제 시행초기에는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에 대해 학교현장과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센터,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 정확한 방향을 수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 각 조직은 청소년 체험활동 사업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연구중심 기관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전략적 노하우를 각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컨설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나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는 구축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컨설팅은 자유학기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까지는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또한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컨설팅을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에 대한 기능이다. 기본적으로 평가는 보다 더 나은 운영을 위하여 각 조직의 운영 성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의 기능은 자체적으로 수행가능하지만 객관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평가하기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각 조직의 청소년 체험활동 관련 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조직에 환류시킴으로써 조직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유학기를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에 대한 기본개념과 각 조직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결국, 자유학기제를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은 생존력, 자유성, 영향력의 파급효과를 가지기 위하여 조직 시스템과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시스템을 형성하게 하고, 자체적으로 다른 조직과 주고받을 수 있는 조직의 성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강화와 다른 조직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을 때 비로소 지속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계 시스템 모형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체험활동과 어떠한 전략을 기반으로 연계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 2.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의 활성화 전략

앞서 살펴 본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 모형은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거시적인 틀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는 해당 모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미시적 차원의 전략들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활성화 전략은 크게 다음의 마인드맵에서 보여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체험활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인식하는 일, 두 번째는 체험활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해나갈 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섭외하는 일, 체험활동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각각의 요소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1) 체험활동의 가치 공유 및 확산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반이 되는 요소는 바로 체험활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더불어, 진로교육 자체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재라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제까지 진로교육이 아닌 진학교육, 취업교육 방식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온 터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생들의 행복과 꿈, 끼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학기가 다소 생소하고 심지어 불필요하게 느낄 수 있다. 자유학기를 운영해야 할 학교와 교사들조차도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 방향성, 구성원들의 역할 등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에서 대단한 혼란과 예산 및 인력 낭비만 초래될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성공 여부는 정부와 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교육에 대한 투자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국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교 차원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와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III-1> 활성화 전략 1: 체험활동의 가치 공유 및 확산

구분	세부 전략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매체 활용</li> <li>• 오피니언 리더 교육/모임 활성화</li> <li>•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참여 촉구</li> </ul>
학교 전체 구성원의 합의와 참여를 위한 학교 차원의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교사의 적극적 참여 독려</li> <li>• 학부모 설명회 및 학부모 커리어코치 참여 독려</li> <li>• 학생 대상 체험학습의 취지 및 태도교육 실시</li> </ul>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담당자 간담회</li> <li>•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독려</li> <li>• 멘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 실시</li> </ul>

(1)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홍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 자유학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 및 교사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형태의 체험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터와 체험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체험활동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전 국민이 인지하고 협조했을 때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캠페인과 미디어 홍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면담 과정에서 연구학교 교사와 관련 업무를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자유학기제 및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형성이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비단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이더라도 우선은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청소년들의 체험기회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체험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또한 교사 및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체험기관 탐방 및 체험활동 참여를 통해 체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학회 등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발전 방향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터체험 지원활동은 몇몇 뜻 있는 시민단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2) 학교 전체 구성원의 합의와 참여를 위한 학교 차원의 홍보

다음으로 학교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 전체 학교 구성원들에게서 자유학기제는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구성원의 참여와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에 대한 합의를

언어야 한다. 구성원들이 공동체적 마인드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자유학기제를 성공리에 운영해나가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 역시 체험활동이 주는 기회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면담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가진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모들은 해당 학기에 학생들의 학습 결손에 대한 불안, 평가방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으며, 그에 대한 학교 측의 구체적인 운영계획 안내와 더불어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 학기 체험활동을 했다고 해서 아이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 학기를 잘 보냈더라도 이후 과정에 연계되지 않고 분리된 시간이 되어 버린다면 자유학기제 동안은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만 생기고, 사교육을 통해 학습 결손을 보강하는 시기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영어, 수학 점수 안 나오는 게 제일 큰 문제다. 그러면 아이들 자존감이 확 떨어진다. 영어 점수 10점만 떨어져도 불안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는 곳이 학원이다.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과연 진로 탐색일까?(학부모 A)”

“성취평가제로 바뀌면서 아이들의 성적은 학생기록부 내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급 학교 진학 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다. 수행평가 등을 통해 뭘 한다고 하는데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있다.(학부모 B)”

“중2 점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학원가는 걸 버티고 있는데, 해당 학기에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다. 충분히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학부모 C)”

해외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유학기가 학습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학습자들의 유의미한 학습과 몰입 경험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김현철, 2013), 자립심, 의사결정력, 대인기술, 문제해결력, 리더십, 자기관리, 의사소통기술, 재정관리 등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자유학기를 가진 학생들의 개인적·사회적 다양한 변화를 장기적으로 조사·분석해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 스스로가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및 진로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가지고 있었다. 즉, 학생들의 미래가 학부모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활동을 통해 성숙해지는 시기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

였다. 이를 위하여 학부모의 인식 자체가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학교 측의 교육 및 홍보도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부모가 유의해야 할 점과 학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체험활동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창을 열어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최고의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내 애는 명문대를 가야하고 대학을 나와야하고 기술직에 대한 천시 경향을 가진 인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학부모 D)”

따라서 학부모 설명회나 간담회 등의 기회를 통해 자유학기 운영 계획을 충분히 안내하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다 많은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 학부모와의 소통을 시도해야 하며, SNS 서비스 등을 활용할 필요도 강구되었다.

“미리 방학 전에 다음 학기 교육과정 및 예상 소요비용 등을 계획하고 공지했으면 한다. 그리고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관리할 때 유의할 점과 학부모의 역할이 뭔지 총체적인 설명을 해주었으면 한다.(학부모 E)”

“전교생 아이들의 부모들이 오도록 하려면 일터 발굴하는데 발품을 파는 것처럼 학부모 설명회도 똑같다. 전업주부를 위해서 오전이, 직장인을 위해선 오후가 좋고, 영업직이나 출장이 잦은 직은 주말에도 해야 되고 가능한 전체 학부모들이 사업설명회를 한번은 듣도록 해야 되고요.(학부모 A)”

“학교에서 공지하는 것들이 학부모와 잘 소통되지 않는다. 커리어코치에 대한 부분도 학부모들에게도 공지가 안 되어 있다. 모르는 엄마도 많다. SNS 등을 활용해서 엄마들에게 홍보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학부모 B)”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인식 전환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방향적 전달 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또 하나의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학부모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교사와 협력하여 개발 및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정주영, 홍광표, 2011). 연희중학교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학부모 커리어 코치’가 일터 체험활동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주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일터 체험 및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실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전파·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학부모 커리어 코치’ 양성을 통해 체험활동 운영을 효율화하고 그 성과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 한명, 한명을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학부모 커리어 코치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가는 곳에 보내주지 않더라도 괜찮다.(학부모 F)”

“진로커리어 교육에서 학생들이 하는 테스트도 하고, 성향이라는 거 검사하고, 꿈을 찾아가는 포트폴리오 만드는 과정, 각 지역을 직업 관련한 장소 컨택, 협업, 진행, 현장에서 진행, 돌아와서 마무리하는 것, 진로 관련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진로 커리어 교육 자체가 학부모의 마인드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학부모 G)”

이와 더불어 체험활동의 주체인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체험활동의 실질적인 주체인 학생이 체험활동의 의의와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주도적인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학습의 주체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학습에 대한 주도성과 동기를 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3)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홍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측면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는 말과 같이 특히나 청소년 체험활동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절실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연구들에서 이미 지역사회의 중요성과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일본의 「종합적인 학습시간」이 성공한 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이 성공할 수 있다(김현철 외, 2010). 나아가 지역사회는 단순히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체험활동의 취지 및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체험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일터 체험을 수락한 경우 무조건 방문할 수밖에 없는데, 소규모 일터를 방문한 경우 기관의 장소가 협소하여 체험 활동에 한계가 있었으며, 멘토(체험활동 담당자)가 아이들을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일회적인 견학 형태로 방문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음. 일터에서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담당자들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것이다.(학부모 E)”

“애들 뒤치다꺼리한다고 생각하는 일터도 있다. 아이들을 반기는 교육적 마인드를 가진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고, 아이들도 준비하고 나가고 기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 아이들이 내 직원, 클라이언트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참여해야 할 것이다.(학부모 B)”

이처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체험기관들이 교육적 마인드와 성공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기관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독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멘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자치시민회의 대표 김동엽(2013)은 “학생들이 지역에서 체험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마을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 높아져 다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일꾼으로 성장” 하게 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효과를 위해 지역간, 학교간 정보교류 및 지속가능한 멘토 구성을 위한 지역의 멘토단 생태계 구축” 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2) 최적의 체험기관 발굴 및 효율적 매칭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최적의 체험기관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매칭하는 일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학교나 혁신학교 등이 일터 체험을 위한 체험기관을 발굴 및 선정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충에 대하여 주로 접하게 되었다. 자유학기제에서의 청소년 체험활동은 비단 일터 체험만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기관을 통한 체험을 의미하지만, 자유학기제에서 지역사회의 일터를 발굴하여 매칭하는 일만큼 새로운 시도이자 어려움이 예상되는 체험활동은 없을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운영,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은 어쩌면 적합한 체험기관을 발굴/선정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약/매칭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는 코디네이터 기관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어 공동으로 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섭외해야 할 것이다.

<표 III-2> 활성화 전략 2: 최적의 체험기관 발굴 및 효율적 매칭

구분	세부 전략
최적의 체험기관 발굴/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합한 교육철학 및 의지를 가진 기관 발굴</li> <li>• 학생 니즈에 맞는 기관 발굴 및 연결</li> <li>• 자기주도적 체험기관 발굴 유도</li> </ul>
체험기관 예약/매칭의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자원 활용</li> <li>• CRM 등 플랫폼 활용</li> <li>• 학교간 일정/자원 협의</li> </ul>

(1) 최적의 체험기관 발굴/섭외

먼저 최적의 체험기관을 발굴/섭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섭외하기에 급급하다 보면 교육적 기준이나 교육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체험기관을 선정하게 될 수 있다. 그것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추진한 체험활동의 의미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기업운리를 갖추고 있는 체험기관, 교육철학과 의지를 갖춘 일터를 섭외하고 학교와 일터가 공동으로 의미 있는 체험활동을 기획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 같은 경우 체험학습에서 원하는 곳에 가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다고 한다.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런 분들이 사회에 많이 있어야 자유학기제가 가능하지 싶다.(학부모 C)”

“멘토님이 건축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어른 애기에 낄 필요 없어’라는 태도가 아니라 아이들을 토론에 참여하는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존중해주니 아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우는 바도 많았다. 그런 경험을 통해 직업인으로서의 삶, 교육자로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었다.(학부모 H)”

“큰 기업체를 간다고 해도 체험 담당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모 대기업에서는 기념품이나 나눠주고 사진 찍고 아이들 모아놓고 회사 소개하는 식의 견학 수준의 체험을 했을 뿐, 실질적으로 직장인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실질적인 교육체험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할 것이다.(학부모 F)”

면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체험기관의 크기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의 교육적 열의와 마인드가 체험활동을 통한 성공적인 경험을 좌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일련의

체험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엽(2013)은 “사업장 선정원칙은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일터로 근거리 우선 선정과 청소년 유해, 노동력 착취, 견학위주 요청 지양 등 선정원칙 필요”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김동엽(2013)에 따르면 지역사회 기반 체험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내(이웃) 아이라는 친밀감과 사회적 책임감이 높아 개방성과 교육 효과 높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져와 안정적인 일터 확보는 물론, 얼굴이 있는 일터라는 큰 장점” 을 가질 수 있다. 단, 지역사회의 기관을 섭외하는 것이 어렵다면 원거리의 기관을 며칠간 방문하는 형태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덴마크 애프터스쿨의 경우 대부분 시골이나 지방도시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기숙사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자립심을 키우고 체험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장점을 갖지만 부수적인 문제들 또한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OECD, 2007). 학교 차원에서는 체험기관 발굴이 쉽지 않고 체험기관의 교육적/윤리적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진로직업체험 추진운영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해나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성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미래인력 육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근거리 우선으로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아이들 중학교 1-2학년 아이들이 많이 갈 텐데. 그리고 노동력 착취하는 곳은 잘 모르잖아요. ... (중략) ... 우리 아이들은 가서 몇 시간 체험만 하고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거에는 이 사회를 조망하는 모든 가치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너무 많이 양상하고 있는 그런 곳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 곳은 가능하면 안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사전에 사업장을 꼭 방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자로서 향후 진로탐색 조언과 역할을 부탁드려야 할 부분이고요.(김동엽 대표, 교육시민자치회)”

자원 발굴 전략을 자원 형태에 따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원의 형태는 크게 공공 자원과 민간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자원의 경우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접근이 쉬우며, 일터기부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덜 민감하다는 장점이 있다. 관리공단 등을 통한 산하기관과 연계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개별단위의 접근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선언적 그림과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민간자원의 경우 경제적 비용 손실에 다소 민감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경제적 보상보다는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원을 발굴하는 방식은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검증된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고 사업취지를 충분히 이해시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나타냈다(박선숙, 2013).

<표 III -3> 자유학기제 성공적 연계를 위한 제안 요소: 체험기관 발굴/섭외

	특성	사례
공공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접근이 쉬우나 관료적 분위기</li> <li>• 실질적 직업체험보다는 라운딩과 기관소개에 그치는 경향</li> <li>• 공적예산의 투입으로 운영되므로 기부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덜 민감</li> <li>• 관리공단 등을 통한 산하기관과 연계</li> <li>• 개별단위의 접근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선언적 그림과 행정적 조치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관리공단 산하에 많은 기관이 있음(서대문의회, 자연사박물관, 형무소, 서대문체육문화회관 등). 공단의 지침으로 일터를 개방. 재개방을 요청하자 대부분 거절(기관 내 자체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더 맡기에 부담됨)</li> <li>• 흥은1동사무소는 ‘착한공간나눔 릴레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구청장의 업무협약을 통해 센터 사업을 위해 자체공간을 의무개방하게 됨</li> </ul>
민간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비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이에 대한 보상 및 대응책 필요</li> <li>• 인증, 현판게시, 위촉장 제작 및 수여, 배너홍보</li> <li>• 지역 풀뿌리 단체와 연계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피정’은 학부모 진로코치단이 지역에 있는 커피숍을 소개한 곳으로 가게 대표가 평소 청소년과 교육에 관심이 많고 대표의 인품이 좋아 일터로 발굴함</li> </ul>

한편, 학생들의 동기 유발 및 의미 있는 체험활동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희망 진로 및 관심 영역을 분석하여 관련된 체험기관을 섭외하는 일이 중요하다. 영국의 심포학년제 관련 연구들에서도 투자 시간과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상당한 예산과 노력이 소요되는 체험활동인 만큼 단순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절성과 효과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학생의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터 체험을 했더라도 해당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시각을 전환하는 기회로 삼는 경우도 있었지만, 희망 체험기관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 동기를 상실하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연구학교 교사들은 일터 체험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생의 3배수에 해당하는 일터를 발굴해야 하며, 사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희망 일터를 신청받고 배정하는 절차가 여러 차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이들의 희망 일터에 배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섭외가 안 되서 못한 아이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 전혀 흥미 없는 일터에 갔다가 실망하고 온 케이스가 많이 있다.(학부모 B)”

“우리 아이는 뭐 전교 1등인데, 우리 아이가 동네 조금만 동네구멍가게에 가서 무슨 직업 체험을 하나고... (중략)... 아이들에게 가고 싶은 일터 우선순위 1:2:3 순위를 받아요. 그런데 받아도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빠까 뻥쩍한 곳을 좋아해요. 근데 막상 저희가 사후 평가를 했는데 멘토들과 단체들하고 학교들하고 학생들하고 저희와 따로 평가를 했는데 학생들이 다녀와서 훨씬 좋아하는 곳은 소규모의 작은 사업장에서 멘토가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세계가 왜 좋은지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해주는 멘토에게서 더욱 배우는 게 많아요. 큰 회사에서 체험한 아이들이 더 효과가 없어요.(학부모 D)”

그러나 사실상 모든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험기관을 연결시켜주는 일이 쉽지 않은 터라,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일터 발굴 및 체험 후 공유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숙제로 체험을 원하는 일터 발굴 후 참가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아이들 중에 몇몇은 흥미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관심이 없었다. 아이들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우선은 아이들의 자기주도적인 발굴이 필요할 것 같다.(학부모 B)”

“학부모의 인적자원을 좀 더 얻어내자 하고 여름방학 숙제로 과제를 내주는 거예요. 자신이 체험하고 싶은 일터를 발굴해 오기. 자기 부모님이랑도 좋고, 친구의 부모님과도 좋고, 그 숙제를 내지 않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학교에서 일터 발굴한 곳에 가야된다고 하는 거죠.(김동업 대표, 교육시민자치회)”

## (2) 체험기관 예약/매칭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체험기관 발굴/섭외의 효율화를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에 의한 청소년체험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활용가능한 모든 학습자원을 기반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통합적인 체험학습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창의체험활동 자원지도(CRM)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경험을 누적해나갈 수 있는 에듀팟, 평생학습계좌제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 또한 의미 있을 것이다. 단, 기존의 창의체험활동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무용론이 논의되고 있는만큼 시스템의 유용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단순히 DB로서 체험기관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험 경험을 공유하고 체험기관의 특징점을

남길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험기관 및 체험활동에 대한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나, CRM과 YRM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CRM에 대응하기 YRM이라고 청소년 쪽의 자원 맵을 구축했어요 CRM에서 하던 자원을 모아봤잖아요. 우리도 우리 쪽의 자원으로 모으고 두 개를 연동시키자. 근데 CRM 쪽이 활용도가 낮아져버리니까 저희도 YRM을 단았어요. 시스템은 필요해요. 온라인의 시스템은 필요하긴 한데 이것을 저희는 너무 크게 잡는 거죠.”

“서울지역 자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면동, 몇 동, 몇 단지 이런 소규모의 어떤 지역공동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이지 백화점처럼 모아 놓은 자원은 필요 없는 것이죠.”

현재 교육기부센터를 맡고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부 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서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물론 철도차량진로 체험, 유치원 교사 체험, 커피바리스타 체험, 치기공과 학과 탐방, 기계설계 및 메카트로닉스 체험, 법률가 체험, 스마트폰 앱 & 콘텐츠 개발 직무 체험 등 갖가지 진로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교육기부센터가 각 지역의 교육기부자들과 학교 현장을 매칭 시켜주는 가교역할도 감당하고 있어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 -4]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 사이트

학교간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계기관의 탄탄하고 신뢰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서로 자원 활용 일정 및 운영계획이 충돌하지 않도록 배분/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매칭 후 작업은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또한 학교 간 연계를 통해 서로가 가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의 일정 및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학교의 일정 및 운영계획을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기관의 사정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

“계속 염려되는 부분이 한 학교일 때에는 그나마 어떻게 해서든지 발품을 팔아서 되는데 전체를 봤을 때에는 한정된 자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배분과 배려예요. 저희가 2년제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들께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경직되어 계세요. 그리고 자기 학교 학사일정에 있어 한 치도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우리 학교는 언제는 학교 행사가 있고 언제는 어떠한 행사가 있으니깐 결국엔 원하는 체험 날짜가 다 똑같아져요. 그렇다면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배분과 배려를 하려면 학교끼리 서로 유연하게 양보하면서 협의체를 운영해야 해요. 3월에 협의체를 구성하면 이미 늦어요. 이미 학사 일정이 나와 버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통과되어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11월경이나 12월에 전체 중학교 교장 교감선생님들과 부장선생님들이 모여서 다음 학사일정 중에 자유학기제에 따른 직업체험을 미리 조정을 해놓으면 일터발굴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하고요. ... (중략) ... 교육진흥청에 요청을 해서 지역사회에 교육 협의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 시민단체, 학교 등 몇 개 그룹을 지역사회협의체를 만드는데, 이 일에 관심이 있고 추진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지역사회 멘토 그룹이 어디인가 그걸 파악하고 협약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김동엽, 교육시민자치회)”

“일본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들끼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로 주간에 중간, 기말고사 끝나고예요. ... 근데 만약에 사회적으로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시행하면 지역별로 합의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그 전에 합의만 잘 이루어져있으면 시간을 유연하게 공간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박선숙,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 3) 체험활동의 질 관리

이제까지 체험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기반 요소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양질의 체험을 제공하고 체험활동을 통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질 관리를 위해서는 체제적 접근이 필요하며, 크게는 기관 차원에서 갖추어야 할 요소와 체험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교사/멘토/청소년지도사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우수한 체험 프로그램을 포맷화하여 공유·확산하는 시도 등이 필요하다.

<표 III-4> 활성화 전략 3: 체험활동의 질 관리

구분	세부 전략
기관의 교육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전담 부서 운영/인력 확보</li> <li>자체 모니터링/피드백/평가 시스템</li> </ul>
교사/멘토/ 청소년지도사의 교육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주체별(교사/멘토/청소년지도사)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li> <li>체험기관/체험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 플랫폼 운영</li> <li>체험 정보 및 사례 공유를 위한 연구모임 운영</li> </ul>

(1) 기관의 교육역량 강화

양질의 체험활동을 제공하려면 체험활동을 주도하게 될 체험기관 및 운영기관의 교육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것과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피드백/평가를 실시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자유학기제 도입이 전면 시행될 경우 체험기관 및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전담 부서 및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면담 과정에서 체험활동의 전/중/후에 걸쳐 준비 및 고려사항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각 기관은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하우를 누적, 효과적 운영 전략을 수립해나갈 수 있도록 전담 부서와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체험활동 준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일련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가 기준은 교육 효과 및 지속 가능성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세울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평가는 체험기관의 교육 담당자에 의한 자체 모니터링 형태가 가능하겠지만, 체험활동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 등 여러 주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개방적 형태가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대기업밖에 없지만 사회공헌팀이 단기 후원이나 이런 자원을 돈이나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교육기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아예 거기서 사원으로 뽑든 필로 뽑든간에 경력자가 있는 사람을 뽑아 1년 내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일터체험을 개방을 해도 어렵지 않은 구조가 되는 거죠.(학부모 H)”

“운영해보니 어떤 물을 주어야 할지, 어느 정도 실습을 시켜야하는지에 대한 감이 온다. ... 기관에게 있어서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신장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중요할 것 같다.(일터체험기관 A)”

“운영하는데 인력 제한도 제한되고 공간 제한도 제한되니까 예약제로 운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 등 효과를 기대하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온다면 전담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개 소수 학교 정도는 현재로서는 소화가 가능한데 만일 매 달 한다가나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면 몇몇 직원은 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 및 비용 투자가 예상됩니다.(일터체험기관 B)”

## (2) 교사/멘토/청소년지도사의 교육역량 강화

체험활동을 이끌어가는 교사/멘토/청소년지도사 등 인력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교사/멘토/청소년지도사들은 체험활동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체험활동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한 채 담당 업무를 갑작스럽게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유학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우선적으로 담당 인력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양질의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면담을 진행했던 혁신학교(부인중학교)의 경우 우수 체험담당 교사들이 사전에 직능원과 하자센터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 및 직간접적인 도움을 얻었고, 자체적으로는 교수 전략 및 운영팁에 대한 공유와 적극적인 공동의 성찰 활동이 나타났던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체험학습 전문가가 아닌 교사들이 담당자가 되면서 경험하게 된 역량 및 정보 부족 문제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으며, 교사들의 지속적인 연구 모임을 기반으로 체험활동 중심의 수업 운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의 진로 및 인생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백화점식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세상을 읽고 소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사이며,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해주는 Provider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학습자를 격려해주는 Coach로서의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지식 전수자로서의 입장에서 조언자, 동료학습자로서의 역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또한 기존과는 상당히 달라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교사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연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상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둘째, 학습자 주도적 참여형 수업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사실상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전 학교 차원에서 모든 교사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 교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교사들 사이의 학습 공동체 운영이 필요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교사들의 지식공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 공동체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다(김병찬, 이미경, 2010; 김도현, 2008; 서경혜, 2010). 교사 공동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사 몰입에 유의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주, 2011). 이동배(2012)에 따르면 교사 공동체의 주요 속성인 가치와 규범의 공유, 목표를 향한 협동적 상호작용 등이 교사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사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교 수업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학교조직의 통합성, 학교장의 영향력, 학습풍토, 교사간의 협력과 사회적 지지 등의 제반 조건 형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교수 방법을 모니터링·피드백·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관련 연수 등이 요구되며, 다양한 교수방법에 대한 피드백과 협력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연수 강화 등이 요구된다. 또한 교사 공동체 형성에 교육 당국과 학교의 행·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스마트 시대를 맞아 스마트 환경에 기반을 둔 교사 공동체 운영을 시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온라인 학습 공동체 ‘인디스쿨’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서경혜(2010)에 따르면 인디스쿨을 통해 교사들은 실천적 지식의 외현화→공유→검증→재구성의 과정을 거쳐 공동의 실천적 지식을 형성·발전시킨다. 교사들은 그들의 암묵적 지식을 외현화하여 공유 가능한 공적 지식화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확산시켜나간다. 교사들은 실천 결과를 토대로 공동체의 공유 지식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공유 지식을 자료·이야기·문답 등의 형태로 순환·발전시켜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실천적 지식을 공유하고 축적하려는 노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현장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사들의 전문지식 기반을 확립시키고, 교육 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데 앞서, 교사들이 협력적으로 배우고 탐구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멘토가 만들어지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는 곳이 99%로 보시면 되요. 그래서 저는 이거 기획하면서 전국의 중학교가 가능할까 싶어요.(체험기관 A)”

“커피숍에 아이들 체험 온다고 해서 사장님이 고민하는 걸 봤다. 커피숍에 와서 아이들이 직접 커피를 만들어보도록 하기도 어렵고, 서빙을 시킬 수도 없고... 상당히 난감해하는 것을 봤다. 프로그램을 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 잘된 프로그램을 정형화해서 포맷화하고 그것을 확산시켜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부분이 개인 사업자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책임자간의 모임을 운영하거나 유사 기관의 책임자들간의 연계를 추진해나간다면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조직이든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본다. 커피숍의 경우 아이들이 만든 커피는 100원에 판매를 한다던가, 일반인들이 기부 차원에서 커피를 구입하는 등 지역사회가 동참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프랜차이즈 차원에서 대형 커피 브랜드가 참여한다면 그 기업의 브랜딩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디어를 낸다면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체험기관 B)”

#### 4) 지속가능성 확보

마지막으로 체험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의 협조가 없는 사실상 자유학기제 청소년 체험활동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꾸준히 고민되어야 할 측면이다. 체험기관 면담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학교와 체험기관 서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드러났다.

**<표 III-5> 활성화 전략 4: 체험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

구분		세부 전략
철저한 사전/사후관리	사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방문 전 학생 사전 교육</li> <li>• 프로그램 취지/참여 시 유의사항에 대한 훈련</li> </ul>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사고/문제상황 대처를 위한 안내</li> </ul>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감사표시/홍보/피드백 전달</li> </ul>
인센티브 제공	기업가치 브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요소 제시</li> </ul>
	MO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U를 통해 기관 차원의 협력 지원</li> </ul>
	세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적 차원에서 세제 혜택 제공</li> </ul>

먼저 체험활동의 사전/사후관리에 있어 체험활동의 목적과 의도를 체험기관과 참여 학생 모두가 잘 이해하고 노력해야 할 측면이 있으며, 체험기관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략이 있다.

### (1) 철저한 사전/사후관리

체험기관에서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리적·경제적 비용을 할애할 뿐 아니라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다. 교육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방문하여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경우 다음에도 체험활동을 지원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기관 방문 전 교육·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체험활동의 취지와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기관의 기회 제공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학습에 준비된 태도를 갖추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체험기관의 멘토/청소년지도사들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안전사고/문제상황을 예방하고 상황대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사업장에 가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충분히 시키셔야 되고 멘토에게 아이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내어 주는 게 좋아요. 이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이번 일터 체험에 있어 무엇을 배우려고 그러는지 이 아이는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이런 부분도 관심 분야는 어디에 있는지 자기소개서를 멘토에게 미리 보내주면 멘토가 이를 미리 숙지하고 있다가 이 아이들이 어떤 관심이 있는지 개별로 눈맞춤도 되고 단순히 일터 체험뿐만 아니라 향후에 진로 탐색에 있어서 교육자로서의 조언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게 필요하고요.(김동엽, 교육시민자치회)”

“사업장 방문을 하루 전에 안하고 당일날 가는데 당일날 갔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업장을 여러 개 여유 있게 여비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사업장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아이들은 어른과 달라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멘토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불쾌해질 수 있어서 미리 멘토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사전 방문을 통해 멘토가 누군지 알고 찾아가는 교통수단을 알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이 수월하게 찾아가게 되고 반드시 팀별로 팀장을 그 안에서 선별해서 팀장의 리드에 따르도록 필요할 것 같다. 아이들과 멘토들간의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해줘야 좋을 것 같고요.(김주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후관리에서도 굉장히 작년에 성공적으로 했지만 이수중학교에 선생님을 직능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올해 잘 마쳤냐고 물었더니 잘 마친 것 했는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힘이

드느냐 물었더니 이수중학교에서는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서 했지만 올해 신생으로 하는 학교에서는 그게 잘 안 되서 그 학교가 먼저 일터 체험을 갖는데 그 다음에 이수중학교 학생들이 갔을 때 일터 개방을 안 하려고 했다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전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해야 할 다음 해의 자유학기제에 대해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타 학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의라던가 아니면 열정 이런 부분이 준비가 돼서 갔느냐에 따라서 사업장이 오픈마인드를 이후에도 계속 가지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우리학교가 이것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결국은 전국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박선숙,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 (2) 적극적인 체험기관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의 제공

체험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니즈와 맞물려 학교와 기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면담 과정에서 체험 기회를 제공한 기관들이 교육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이를 계기로 얻을 수 있는 여러 효과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테면 체험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형성, 마케팅·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체험에는 다섯 명이 왔지만 만약 이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면 업무에 지장을 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체험을 오면 적어도 3일 정도 업무 진행을 못하고 준비하면서 또 시간을 쓰고 하니... 기업들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회사 측에 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에서 참여 업체에 일정의 금액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질 높은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서도 요청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일련의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잘 맞아떨어졌어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프로그램의 취지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니즈가 맞았던 부분이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일터체험기관 B)”

“학교 측에서 먼저 의뢰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마침 직업교과서라고 도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초중등 학생들에게 100가지 직업을 소개하는 건데요. 마침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자유

학기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연회중에서 연락이 왔고 마케팅 방침과 맞물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일터체험기관 A)”

그러나 사실상 체험기회 제공이 가져다주는 실증적인 마케팅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경제적 논리에 의존하여 교육 기부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유학기제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일이다. 체험기관의 건강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감사 편지나 체험활동 중에 수집한 자료들을 모아 전달하는 것은 체험기관의 기부 활동에 대한 답례로 적합하다.

“연회중학교 같은 경우는 참가했던 아이들이 감사 엽서를 개인이 쓰게 하고요. 교장 선생님 이름으로 한 장의 편지로 해서 단체로 활동했던 사진을 결과물로 같이 보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갔으면 100군데 그걸 했어야 했으니까 그걸 하시면서 멘토들이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다시해서 동공해서 주소를 다 써서 부치면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일터를 개방해주시는 분들이 대가가 없으면 자기 자식 있으니까 해주시는 거거든요. 감사편지하고 이 일을 잘 끝냈다는 모습을 담아서 주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잊지 않고 우릴 기억하는구나’하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관리를 한단 느낌이 들었을 때 이걸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후에 이분들하고 관리나 이런 것들도 아까 나온 것처럼 감사편지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여력이 된다면 사실은 한자리에 오시기 힘들겠지만 한두 번 나눠서 교감선생님이 장기적으로 보시고 5~6천 원짜리 식사하면서 감사하다고 성의 표시를 좀 하세요. 큰 접대가 아니고 얼마만큼 고맙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따뜻한 마음에서 서로 교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문자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문자보단 전화 한 번 드리세요.”

또한 학교 차원에서 체험기관을 학교 홈페이지나 지역사회 신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은 지역사회에 위치한 중소 규모의 기관에게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 기관은 체험기관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기업의 경우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작은 동네 사업장들은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교육을 이렇게 해 주세요’하면 어느 사업장이 기부를 했다고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 기부를 해달라는 것도 미리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주면 그걸 보고선 사업장 오픈도 해주거든요. ... 예산이 허락한다면 교육기구인증패같은 걸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가장 돈 안 들이는 게 리플렛하고 학교 홈페이지이고... 공공기관 같은 곳은 서비스 만족도나 친절도로 먹고 살잖아요. 학부모들의 일이 공공기관의 사업장 개방해주는 공공기관에 일부라도 들어가서 칭찬 남기는 릴레이 운동 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사업장이 일터를 개방해주니까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한번이라도 ‘이번에 일터 개방해주셔서 고마워서 일부러 왔습니다’라고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개방해주고 싶죠.(김동엽, 교육시민자치회)”

또한 청소년 체험활동 협력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현판 제공, 운영과정 및 결과 평가(학생 만족도, 교육경험 평가)를 통해 우수 체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해주는 방법 등을 도입한다면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여러 기관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되면 각 기업에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것 같아요. 정말 국가 차원에서 정착이 되고 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있게 되면 모든 기업이 앞 다투어 진행할 것 같아요. ...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MOU를 통해 공식화해주셔서 교육적으로 인증된 기관이라는 홍보를 해 주신다거나... 그게 곧 신뢰 있는 기업임을 드러낼 수 있는 측면이 된다면 저희 기업 측에서는 퀄리티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일터체험기관 A)”

“결국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인센티브도 분명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합의한 상태에서 세제 혜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번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연간 다섯 차례 개방 등 사업장에 한에서 준다거나 해야 된다. ... 연말소득공제나 기업 소득공제 다 해주는데 이게 저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도 없을 것 같고요, 시간으로 해주냐 물질로 해주냐의 차이인 거지 요즘 물품도 돈으로 환산해서 인정해주잖아요. 시간 기부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김동엽, 교육시민자치회)”



# 제 4 장



## 요약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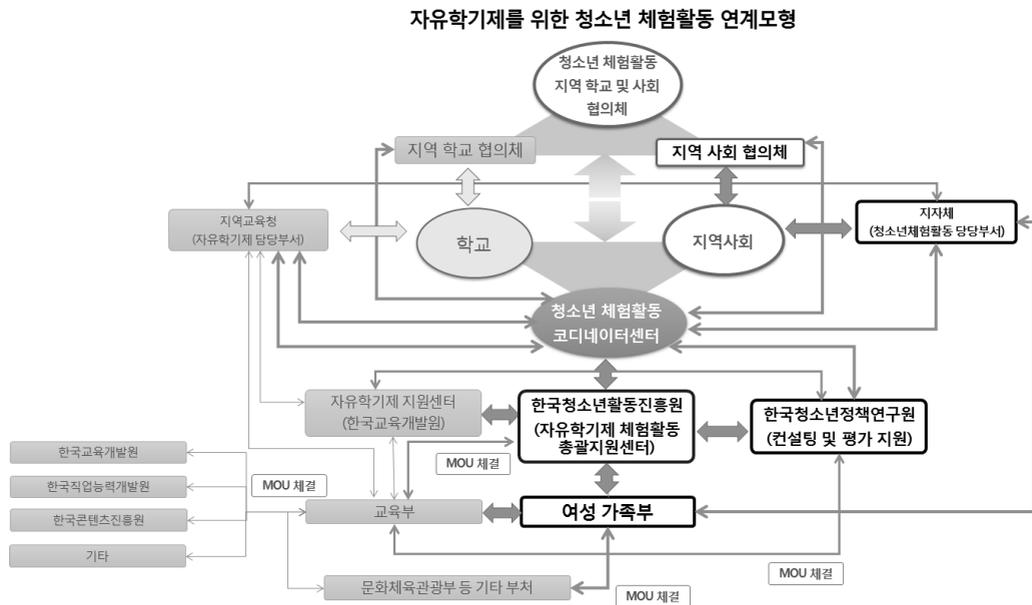
## 제 4 장

# 요약 및 결론

청소년기는 자아실현을 위한 도전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로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과중한 학습 부담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로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자유학기는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고민·설계하는 경험으로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꿈과 끼를 찾기 위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교육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과의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과 연계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해 제안하는 청소년 체험활동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연계 시스템 모형은 [그림 IV-1]과 같다.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가수준의 정책을 기반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안)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학교조직, 지역사회조직의 긴밀하고도 원활한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한다.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는 학교 및 지역사회조직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다양한 직업체험을 위한 일터 발굴, 전문 직업 멘토인력풀 구성,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인프라 및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지역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연계지원, 진로인식·탐색·설계를 위한 컨설팅 제공,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학교 및 지역사회 협의체 조직 및 운영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를 위한 관련 조직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조직은 지역학교를 중심으로 지역학교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유학기제 운영방침과 교육과정 및 체험활동 교육프로그램의 공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협의체장과 직업멘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학습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자생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상위 조직인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센터 조직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및 배정, 청소년지도사의 체험활동 지원 역량 제고를 위한 질 관리, 관련 인프라 개선·확대,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부 및 다른 부처와의 연계 속에서 자유학기제라는 정책을 청소년 정책과 연계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지역단위 코디네이터 센터를 총괄지원 및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역단위 코디네이터 센터의 예산지원, 역량강화 및 질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림 IV-1] 자유학기제를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 모형의 틀

한편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의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체험활동의 가치를 공유·확산시키는 일, 둘째 체험활동을 운영해나갈 수 있는 적절한 체험기관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매칭하는 일, 셋째 체험활동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넷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자유학기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 활성화 전략(종합)

	구분		세부 전략
체험활동의 가치 공유 및 확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매체 활용</li> <li>• 오피니언 리더 교육/모임 활성화</li> <li>•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참여 촉구</li> </ul>
	학교 전체 구성원의 합의와 참여를 위한 학교 차원의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교사의 적극적 참여 독려</li> <li>• 학부모 설명회 및 학부모 커리어코치 참여 독려</li> <li>• 학생 대상 체험학습의 취지 및 태도교육 실시</li> </ul>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담당자 간담회</li> <li>• 지역사회와의 관심과 참여 독려</li> <li>• 멘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 실시</li> </ul>
최적의 체험기관 발굴 및 효율적 매칭	최적의 체험기관 발굴/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합한 교육철학 및 의지를 가진 기관 발굴</li> <li>• 학생 니즈에 맞는 기관 발굴 및 연결</li> <li>• 자기주도적 체험기관 발굴 유도</li> </ul>
	체험기관 예약/매칭의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자원 활용</li> <li>• CRM 등 플랫폼 활용</li> <li>• 학교간 일정/자원 협의</li> </ul>
체험활동의 질 관리	기관의 교육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전담 부서 운영/인력 확보</li> <li>• 자체 모니터링/피드백/평가 시스템</li> </ul>
	교사/멘토/청소년지도사의 교육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주체별(교사/멘토/청소년지도사)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li> <li>• 체험기관/체험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 플랫폼 운영</li> <li>• 체험 정보 및 사례 공유를 위한 연구모임 운영</li> </ul>
체험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	사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방문 전 학생 사전 교육</li> <li>• 프로그램 취지/참여 시 유의사항에 대한 훈련</li> </ul>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사고/문제상황 대처를 위한 안내</li> </ul>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감사표시/홍보/피드백 전달</li> </ul>
	인센티브 제공	기업가치 브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요소 제시</li> </ul>
		MO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U를 통해 기관 차원의 협력 지원</li> </ul>
		세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적 차원에서 세제 혜택 제공</li> </ul>

체험활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국민 홍보를 캠페인과 미디어 홍보, 교육 및 토론회 개최 등의 다양한 경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는 체험활동의 성패는 학교 전체 구성원의 참여와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에 대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와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자유학기제와 교육기회 제공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최적의 체험기관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매칭시키는 일이다. 학교에서는 코디네이터 기관과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체험기관으로 적합한 기관을 발굴하고 섭외하는 한편, 학생들의 희망 진로 및 관심 영역을 분석하여 관련된 체험기관을 적절히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일터 발굴 및 체험 후 공유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활용가능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통합적인 체험학습 시스템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간 자원 활용 일정 및 운영계획이 충돌하지 않도록 배분/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양질의 체험을 제공하고 체험활동을 통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 차원에서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것과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피드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험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교사/멘토/청소년지도사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 및 학습 공동체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 우수한 체험 프로그램을 포맷화하여 공유·확산하는 시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험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상 자유학기제 청소년 체험활동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꾸준히 고민되어야 할 측면이다. 학교에서는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기 전 교육·훈련을 통해 학생과 체험활동 담당자들이 체험활동의 취지와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고, 여러 형태의 안전사고/문제상황을 예방하고 상황대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체험활동 이후에 체험과정 및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체험기관에 대하여 우수 체험기관 인증 및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논의 및 제언**



## 제 5 장 논의 및 제언

자유학기제는 청소년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에 참여하고 꿈과 끼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계획되었다. 비록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꼭 짜인 수업시간 탓에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진로를 모색해보는 시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나가기 위한 탐색시간을 주고, 스스로 실현해 본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에는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경쟁적인 진학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시행되는 점은 가장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한 학기 동안의 활동이 평가에서 배제되다 보니,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학습보다는 사교육에 매진할 우려와 사교육 활성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체험활동의 효과와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충분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으며, 양질의 체험활동이 계획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가와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학기제가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단순 실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이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추진체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체험기회를 개방한 기관에 대한 교육기부 인센티브제도 보완과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되어야 한다. 도시 지역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체험기관의 다양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는 특화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상설화하고, 지역사회 내 재능기부 전문인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 및 연구학교의 경우 시범운영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 관계자들

은 다양한 형태의 체험활동을 구성하고 일터 체험기회 마련을 위한 예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체 학교 교사가 체험활동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뛰어들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향후 일반학교에서도 유사하게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구체적인 고충과 극복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 및 인력 배분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학생과 학부모의 유기적인 협조와 자기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가기 위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학생의 능동성은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칫 학생 주도가 아니라 학교 주도, 교사 주도형 교육 프로그램 일색의 자유학기가 된다면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주체로서 자신과 직면하는 경험을 하기는 어렵게 된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꿈과 끼를 책임있게 찾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교사 및 학부모는 조력자이자 코치로서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능동적인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체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강화하여 운영하는 방안, 청소년 개인별 활동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계획 수립과 성취 결과를 포상하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기관을 확대하여, 지역 현장과 연계한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신과 지역사회, 국가를 변화시키고 청소년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평가 미실시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학기 중 다양한 방식의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방식의 인지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체험활동을 통해 배운 바를 성찰하고 성숙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평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체험활동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교사·매체·체험활동과정 및 결과 전반에 대한 체제적 평가도 이루어진다면 자유학기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참 고 문 헌

- 강기수(2013).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토론회 자료집(새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 현장 점검 토론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41호) 창의적 체험활동.
- 교육부 (2013). 자유학기제 보도자료.
- 김기현, 맹영임 (2011).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 협력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도현 (2008). 교사들의 지식공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실천공동체의 발달과정: 인디스쿨 사례연구. **교육공학연구**, 24(2), 1-30.
- 김병찬, 김미경(2010). 온라인 교사공동체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여교사 아이사랑 카페 사례. **교육연구**, 18(3), 71-107.
- 김수혜. (2013, 4월 25일). 아일랜드의 조언 “자유학기제, 4가지 있어야 성공” .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30425032309650>.
- 김예선 (2006). 청소년동아리활동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주, 김용대, 성기원 (2003).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종백 (2010). 청소년 체험활동의 교육심리학적 논리와 근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 김지연 (2000). 청소년기 동아리활동에 따른 정의적 행동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0-R08.
-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2013).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분석 및 시사점.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1호.
- 모상현, 김지수, 김현경, 박찬열, 변호용, 양은일, 조남익 (201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청소년 동아리활동 운영매뉴얼 (지도사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정주(2011). 교사공동체가 교사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교육연구**, 28(2), 191-211.
- 서경혜(2011). 온라인 교사공동체의 협력적 전문성 개발: 인디스쿨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8(1), 133-161.
- 성은모 (2013). 자유학기제의 주요쟁점과 방향. 2013년 화성시청소년주관기념식 기초강연 자료집, 13-23.
- 성은모 (2012).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2-49.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사업매뉴얼·우수사례집.
-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1-R02.
-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최은지, 한효원.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기봉 (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외국사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NTPI 기획세미나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pp.1-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지연, 김정주, 박봉수, 현영섭, 김신영, 김기현 (2006).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정윤경 (2010). 청소년 체험활동의 교육적 의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 정주영, 홍광표(2011). 국제 비교를 통한 교사-학부모 참여 액션러닝 실천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개발. **동북이문화연구**, 27, 269-287.
- 정진철. (2013). 영국 GAP Year가 한국 자유학기제에 주는 시사점. 2nd 진로교육 국제포럼: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 모색, pp, 83-86.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조남억 (2010).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단체활동의 연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pp. 83-10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청소년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전문가워크숍 자료집 11-S0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상철, 길은배, 김민, 김진호, 김혜원, 문성호, 박선영, 설인자, 오승근, 윤은종, 이명옥, 이은경, 최순중, 김영지 (2009).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성욱 (2001).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동아리활동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철수, 강옥련 (2010). 동아리 활동 참여 청소년과 미참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2(3). pp. 25-46.
- Andrew Jones. (2013). Reflecting on the UK Gap Year : Insights for South Korea' 'ree Learning Semester' (영국 갭이어 연구: 한국의 '자유학기제' 를 위한 고찰). 2nd 진로교육 국제포럼: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 모색, pp, 43-8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Bilge Daldeniz & Mark P. Hampton. (2010). VOLUNtourists versus volumTOURISTS: a true dichotomy or merely a differing perception?. In Angela M. Benson(ed.). Volunteer tourism: Theoretical frameworks and practical applications, pp.30-41. Taylor & Francis: Oxon.

- EBS. (2010). 세계의 교육현장: 세계 유일의 롤 플레이 게임 학교 유스터스코브 애프터스쿨. <http://home.ebs.co.kr/worldedu/main>.
- Efterskole. (2013, 7월 16일). The historical and cultural origin of the Efterskole. <http://www.efterskole.dk/Om%20efterskolen/In%20english/Origin.aspx>.
- Eurydice Database. (2007). The Education System in Denmark 2006/2007. [www.Eurydice.org](http://www.Eurydice.org). Eurobase.
- Gerry Jeffers. (2013). Ireland' Transition Year : Insights and Challenges(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성공사례 및 과제). 2nd 진로교육 국제포럼: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 모색, pp, 1-3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Jones A. (2004). Review of gap year provision. Research Report 555. Nottingham: DfES Publications.
- Knud J. V. Jespersen. (2011). A history of Denmark. Palgrave Macmillan: Basingstoke.
- Macca Sherifi. (n.d.). The history of Gap Year: An in-depth view of what gap years are and where they came from. (2013, 7월 18일). <http://www.gapyear.com/articles/175601/the-history-of-the-gap-year>
- Noemi Kalznelson. (2013). Denmark and the Gap Years(덴마크와 갭이어). 2nd 진로교육 국제포럼: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 모색, pp, 91-13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OECD. (2004). Reviews of National Policies for Education: Denmark 2004: Lessons form PISA 2000. OECD Publishing, Paris.
- The Danish Friskole Association. (1995). The Danish Friskole: a segment of the Grundtvigian-Kold school tradition. Faagorg: The Danish Friskole Association.

##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임희진·정효진·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현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김희진·강영배·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조아미·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전명기
- 13-R10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윤옥경·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배상률·성은모·이혜연·김균희·이용교·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이혜연·배상률·성은모·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오현석·최윤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김경준·김지혜·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경준
- 13-R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황진구·한영근·허효주·이영화
- 13-R1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중단 연구 / 이종원
- 13-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 13-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중단분석 - / 황진구·허효주

##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 · 박정배 (자체번호 13-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박정배 · 오해섭 (자체번호 13-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 홍영란 · 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 · 김형주 · 이선영 (자체번호 13-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정신건강지표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 · 강석영 · 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총괄보고서: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 · 황여정 · 이준일 · 방은령 · 강현철 (자체번호 13-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 개발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 김나연 · 정다은 (자체번호 13-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윤철경 · 유성렬 · 김신영 · 임지연 (자체번호 13-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전영실 · 김지영 · 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 수 시 과 제

-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전략 연구 / 최창욱
-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 · 김희진
-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 · 김윤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 수 탁 과 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 · 김형주 · 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황진구 · 김지연 · 이해연 · 김광혁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이유진 · 한상철 · 추승연 · 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 · 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 · 이창호 · 최금해 · 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 · 황진구 · 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 · 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 · 황진구 · 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 · 맹영임
- 13-R43 자유학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 · 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 · 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 · 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포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 · 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 · 이주석
- 13-R49 2013년 또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김지연 · 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 · 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 · 배상률 · 강영배 · 김정주 · 김혁진 · 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 · 김경준 · 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오해섭 · 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해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해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현철 · 김희진 · 김인아 · 김재근 · 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 · 김영지 · 김희진 · 송인숙 · 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 · 김영지 · 김현철 · 박정수 · 박지만 · 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 ·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 · 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요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요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민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 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 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수시과제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방안 연구**

**인 쇄** 2013년 8월 30일

**발 행** 2013년 8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발행인** 이재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팀)